



교육연합신문



2026년 7월 1일 (수) 제447호 (창간 2009년 1월 22일)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부산동성고, 부산과학전람회 수상 ▶7면
 부산동성고등학교(교장 김희석)는 지난 5월 22일 부산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사이언스홀에서 열린 '제63회 부산과학전람회'에서 본교 영재학급 연구팀들이 산업과 에너지 부분 특성(1위), 생물 부분 우수상(2위) 2팀, 중등부 단체상을...



기업탐방-삼대스포츠 김제규 대표 ▶10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이 새로운 사회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파크 스크린골프는 전국적으로 동호인 수가 급증하며 가장 주목받는...



"학우협, 전북교육의 든든한 한 축" ▶14면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발대식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학우협)는 도내 모든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14개 시군 협의회...

정근식 교육감 협 회장 "공교육 안정 최선"

제11대 협의회장 선출 후 첫 입장... 교육재정·교권 보호·기초학력 등 현안 해결 강조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뒤 "대한민국 공교육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6월 15일 밝혔다.
 정 협의회장은 협의회장 선출 직후 발표한 소감을 통해 "이 무거운 책임을 맡겨주신 전국 시도교육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전국 교육감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협의회장은 현재 교육계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권 보호 후속 대책,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 구축, 교원 정원 문제, 기초학력 향상, 학생 마음건강 지원, 유보통합, 교육격차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역마다 여건과 과제는



다르지만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의제가 있다"며, "교육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시도교육청이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정책 역량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협의회장은 "교육은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치 발전에 힘

쓰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협력할 과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공교육의 안정성과 교육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안에는 책임 있는 태도로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협의회장은 "교육의 본질과 공교육의 책임, 교육자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학생의 배움과 성장,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의 안정, 교육격차 해소 등 핵심 가치가 흔들림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낮은 자세로 듣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병성 기자 kbs@

제7회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G1) 열린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7월 25일 개막... 50여 개국 500여 명 이상 참가 예정

태권도 세계화의 선구자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을 역임한 김운용 총재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는 '2026 제7회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G1)'가 오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고 6월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기원과 김운용스포츠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이끌며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김운용 총재의 철학과 업적을 기리고, 세계 태권도 발전과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된 국제대회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WT) 공인 G1 등급 국제대회로, 국내외 우수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겨루기, 품새, 격파, 시범 등 다양한 종목이 운영되며 참가 선수들에게 국제 경쟁 경험과 문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 체계와 공정한 경기 환경 조성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내외 태권도 관계자와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대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는 태권도계 원로와 국제 스포츠계 인사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권위를 한층 높였다. 윤용석 국기원장이 대회장을 맡았으며, 명예대회장에는 IOC 부위원장을 역임한 세르미앙 총재와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이재창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장과 김영호 조직위원장이 조직위원장을 맡

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이끈다.
 최재춘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은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세계 태권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고 기량을 겨루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라며, "김운용 총재의 정신을 계승해 태권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제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약 50여 개국 500여 명 이상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국내외 태권도 관계자와 관람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가 신청은 공식 접수 시스템을 통해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황요규 기자 hog@

김대중 통합특별시 교육감, 취임식 대신 '학교 현장' 출근

목포공고·광주중양초 잇따라 방문... 지역 균형·소통 행보

전국 최초의 광역 단위 교육통합 기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김대중 초대 교육감(사진)이 7월 1일, 의례적인 취임식을 전면 생략하고 곧바로 학교 현장을 찾은 것으로 공식 입기를 시작했다.
 김대중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 준비하고 있는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경범)에 따르면 이번 취임일 일정은 광주·



전남 교육 통합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의 불안과 혼란에 철저히 대비하고, 오직 교육 현장과 실용에 방점을 두겠다는 김대중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취임 첫날인 1일 0시 개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

시의회보회의에 참석해 취임선서를 한 후 오전 8시 20분에 전남 지역의 직업계고인 목포공업고등학교(AI에너지 마이스터고)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광주 원도심 학교인 광주중양초등학교를 찾아 학생과 교직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는 전남과 광주의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현장 중심 교육 행정의 서막을 알리는 행보다. 오후에는 국립 5·18민주묘지 등을 찾아 민형배 특별시장과 공동 참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4시 30분부터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AI교육원에서 양 시도 교육청의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전라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K-교육특별시'의 로드맵을 선언하고, 교육행정 통합 조기 안착을 위한 조직 안정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장성석 기자 2580news@daum.net

인천교육청, 제4회 예술이 樂' 축제 성료

인천예술고·인천대중예술고 학생 참여 융합예술 축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6월 19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6 제4회 예술이 樂(락)'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예술

이 樂'은 인천예술고등학교와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융합예술 축제로, 예술적 재능과 성장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우리의 지금, 예술이 되

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빛나는 순간들을 예술로 기록하고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며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눈부신 성장을 아낌없이 응원했다. 축제는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형태로 진행됐다. 안용섭 기자 ays@

조달청 우수제품
 성능 인증
 GS인증 1등급
 녹색기술 인증
 친환경 환경표지 인증
 산업융합혁신제품
 우수발명품

APEC 2025 정상회의장 LED 전광판 구축 기업

실내 LED 전광판 | 옥외 LED 전광판 | LED 전자현수막 | 스탠드 LED 전광판

전국 초·중·고 구축 건수 1위

주식회사 케이시스

국내 유일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 기업 | 케이시스 스마트 자동화 공장

SMT라인

아셈도어 라인

어셈블리 라인

에이징룸

조달청 LED 전광판 계약·납품·구축 건수 3년 연속 1위

국내 최초 안내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1,600건 이상 구축'

140종 이상의 빛나는 '수상·인증·특허' 보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계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글로벌 컨트롤러 '노바스타 공식 전략기술 파트너'

세일고등학교 2층 강당

예천전자공업고등학교 대강당

여의고등학교 입구

북원여자고등학교 입구

용인 대지초등학교 옥외

장성백암중학교 옥외

맘미초등학교 본관 입구

사송초등학교 본관 입구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

학산여자고등학교 강당

대전대성여자중학교 실내 스탠드전광판

사천여자고등학교 LED배너

국무총리상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정부 조달청장 표창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녹색인증 유공포상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제품문의
1600 - 6187

KSYS
www.ksys.co.kr

부 산 |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더케이타워 1F~6F
 서 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평촌 금강렌터빌 IT타워 411호
 대 전 | 대전 유성구 북방동로 43 도안더리브스그니처 749호

광 주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BC지식산업센터 A동 1301-B호
 제 주 | 제주 서문로 33
 미 국 | 732 S 6TH ST, STE R, Las Vegas, NV 89101, USA

공 정 |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9 (모라동) 백양스마트빌 B1, 1F, 5F, 6F
 부산 물류센터 | 부산 남구 문현로 13-1 케이시스 물류창고
 서울 물류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평촌 금강렌터빌 IT타워 B110호

“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옮기겠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AI교육·교권 회복 등 경기교육대전환 청사진 제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출범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고 경기교육대전환을 실현하겠다”라고 6월 15일 밝혔다.

안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메시지를 통해 “이번 인수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경기도민이 맡겨준 책임을 충실히 준비하고 경기교육대전환을 실현으로 옮기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경기교육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인수위원회가 앞으로 사람 중심 AI교육, 교권 회복,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통학과 돌봄, 학교와 지역의 연계 강화, LAS 교육 등을 핵심 과제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LAS 교육은 문해력(Literacy), 문화

예술(Arts), 스포츠(Sports)를 기반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모델로 추진될 예정이다.

안 당선인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교육청은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이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등교가 기다려지는 학교를, 학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안 당선인은 “경기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뀐다”며 “말보다 준비와 실천, 성과를 통해 경기교육대전환을 시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향후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를 거쳐 교육 공약을 구체화하고, 차기 경기교육 운영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병선 기자 kbs@

강무길, 제10대 부산시의회 국힘 전반기 의장 후보 선출

이종진 의원 5표차로 꺾고 당내 의장 후보 확정... 원내대표에 박종철 의원

국민회의 부산시당은 6월 23일 부산시당에서 소속 부산시의회 당선인 3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10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했다.

이날 의장 후보 경선에서는 3선의 강무길 의원(사진·해운대구 제4선거구)이 총 37표 가운데 21표를 획득하며 16표를 얻은 이종진 의원(북구 제3선거구)을 5표 차로 제치고 국민회의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의장 후보 경선에 앞서 실시된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강무길 의원과 함께 원 구성에 나선 박종철 의원(기장군 제2선거구)이 당선인들의 지지를 얻어 차기 국민회의 부산시의회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강무길 의장 후보는 당선 소감을 통해 “부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을 통해 “부산시의회의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부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유규 기자 hog@

社說

충남 ‘교권보호관’ 신설, 선언에 그치지 말고 강력한 ‘현장 맞춤형 방패’ 돼야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 추진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급한 조치다.

이번 정책은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고 교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마중물이다. 전 세계적 인기를 끄는 드라마 ‘참교육’의 현실판으로 주목받는 만큼 단순한 조직 늘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 당국은 오는 7월 출범할 기구가 실효성 있는 ‘원스톱 안심 통합체계’로 기능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그동안 교사들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해도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충남교육청이 구상하는 교권보호관 조직은 변호사, 조서관, 갈등조정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전방위로 배치한다. 이는 초기 대응부터 사후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교사가

약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교실의 교육력이 비로소 살아난다. 이 제도는 벼랑 끝에 선 교사들을 구제할 현장 맞춤형 해결책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과 인력 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원 단체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크다.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 마련 등 법적 절차를 단기간에 끝내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또 다른 관료주의적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우려는 교권보호관의 필요성을 꺾을 핑계가 되지 못한다. 조직개편의 진통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매일

겪는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다.

조례 마련이 걸림돌이라면 도의회와 교육청이 조당적으로 협력해 신속히 해결하면 된다. 의견 수렴을 이유로 출범을 미루거나 조직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당장 불타는 현장에 소방수를 투입하는 결단이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충남만 교권보호관은 교사의 주도성을 보장하는 가장 가깝고 강력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 이병도 당선인과 충남교육청은 7월 즉시 출범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행정적 난제를 정면 돌파하여 전국 공교육 정상화의 기념비적인 롤모델을 완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수교육법 등 교육 관련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계획 의무화로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기대

교육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 분야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고전문헌의 체계적 관리, 대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반영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돼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완화하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번역된 고전문헌을 한국고전번역원이 이관받아 통합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재정지원 종료 이후 유지·관리 예산 부족으로 번역 자료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국고전종합DB를 통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숙사 운영과 관리 등 학생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보다 폭넓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학사의 운영·관리와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수교육 지원 체계 강화와 교육 자원의 효율적 관리,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선 기자 kbs@

전남교육청, 발명교육대상 개인·기관상 수상 영예

광양발명교육센터 ‘3년 연속 우수’ 기관... ‘발명·지식교육 우수성’ 입증

전라남도교육청이 대한민국 발명교육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개인상과 기관상을 배출하며 발명·지식재산 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광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우수 발명교육센터’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최고의 영예인 공로상과 교사상을 동시에 수상한 데 이어, 기관 부문에서도 광양발명교육센터가 3년 연속 우수 발명교육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주관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은 전국에서 발명교육을 혁신한 최우수 교육자와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는 교육계의 ‘발명 노벨상’으로 꼽힌다. 수상자들은 2025년 12월 선정됐고, 24일 공식 시상식이 이뤄졌다.

개인 부문 공로상을 수상한 삼향북초등학교 김관규 교감은 지



난 2017년 교사상 수상에 이어 올해 공로상까지 거머쥐며 ‘두 부문 모두 수상한 전국 최초의 교육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김 교감은 지난 11년간 149회에 걸쳐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발명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특허 기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공로를 높게 인정받았다.

함께 교사상을 받은 도원초등학교 김연태 교사는 코로나19 시기

에도 중단 없이 발명수업을 이끌었으며, 여수 지역 최초로 ‘중등 발명영재 정규반’을 개설해 체계적인 영재교육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식재산(IP)·메이커·환경·예술을 융합한 특성과 프로그램과 소외지역 대상 발명 한마당을 기획·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 부문에서는 광양발명교육센터가 ‘3년 연속 전국 우수 발명교육센터’로 이름을 올리며 기관 표창을 받았다. 광양발명교육센터는 지역 사회와 연계한 밀착형 발명 프로그램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국 발명교육센터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더불어 올해 3월 광양창의융합교육관으로 발명교육센터를 확장·이관하여 발명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우선구매대상 “우수발명품”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EdTech KOREA 2023 BM BUSINESS MODEL 최우수상

XingQ Table

조달청 G2B 식별번호
24823144 / 24860039

창의사고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 창의사고력 향상 콘텐츠 48종
- 창의사고력 향상 테스트
- 안전교육
- 사회성 발달
- 메타인지력, 문제해결력 향상

[설치 적용 분야]

-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 교실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키즈 카페, 체험관, 교육관, 과학관, 공공기관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www.creple.co.kr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편집인 **한승균**
우 135-95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호(충무로 47가)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서울본부 1899-0954
인천본부 032-429-1000 충북지사 043-292-0779 영남본부 054-273-3336
대전지사 1666-0536 울산지사 052-276-0904 호남본부 0505-629-3366
전북지사 063-226-0119 부산지사 051-711-1444 제주지사 1522-1160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1실 6국 체제' 출범

기획조정실 신설, 기존 6국 체계 유지로 통합 초기 안정성 확보

전라남도교육청은 7월 1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통합 교육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이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 추진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할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기존 6국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제1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미래교육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등 6개 국 체제를 유지하는 '1실 6국

체제'로 출범한다.

특히, 신설되는 기획조정실은 재정전략기획담당관, 조직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으로 구성되어 통합행정, 조직·재정 전략 수립,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 대외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통합 교육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전남과 광주의 상이한 교육환경과 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통합교육청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조정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기존

6개 국은 현행 기능과 인력을 최대한 승계하도록 설계했다.

학교 지원, 교육과정 운영, 학생 교육활동 지원, 교육행정 서비스 등 현장과 밀접한 업무는 연속성을 유지해 통합 초기 학교 현장의 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남과 광주의 우수 교육정책과 행정 역량을 결합해 교육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교육과 글로컬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재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출범과 조직 정착을 도모하는 1

단계 개편이다.

향후 조직 운영 성과와 교육환경 변화, 교육공동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업무 재설계를 통해 본청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체계로 슬림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의 안정성과 교육서비스 연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됐다"며,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통합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통합교육청이 안정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무안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창의융합 수학교육 운영

시기반 교과연계 수학체험활동으로 문제해결력·창의력 키우는 미래교육 실현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은 6월 23일 무안사랑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6. 찾아가는 창의융합 수학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 체험하며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활동으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체험교실'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올림픽'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중심 수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학교급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으로 운영된다. 초등학교 대상 '수학체험교실'에서는 AI505 FACE 로봇, AI 최적요리사 떡볶이 대결, AI 미러봇, 방탈출 메이커, 예코아일랜드, 경제수학 기반의 인공지능 기업분석 등 AI와 실생활을 접목한 다양한 주제탐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중학생 대상 '수학올림픽'은 조별 협력형 미션 활동으로 구성되어 주사위 미션, 로프 미션, 하노이탑 알고리즘, 이진법 퀴즈, 원주율 썰렁지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수학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무안사랑초등학교 5학년 한 학생은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학을 로봇과 함께 체험하며 배우니 훨씬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즐거웠다"며, "수학이 실생활과 미래 기술에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수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보훈 교육장은 "수학은 단순히 계산하는 교과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학문"이라며,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창의융합교육을 확대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양길 기자 2580news@daum.net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 현장 중심 소통 행보 이어가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 자립준비청년·전세사기 피해자 현장 간담회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위원장 차재권)가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주 청년공간 현장 방문에 이어 6월 22일 자립준비청년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잇달아 만

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먼저 오후 1시 30분에 자립준비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몽실커피에서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박세민 청년특위위원장, 자립준비청년, 민간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립청년들이 겪는 관계 단절, 정보 부족, 일경험 기회 부족 등 문제를 공유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그리고 부산지역시민사회대책위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며 전세사기 피해청년들의 현실과 제도 개선 과제를 청취했다.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돼 있는 만큼, 실질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인수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청년정책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박세민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 청년이살기좋은부산특위 위원장은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라며, "청년이 부산에서 고립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오규 기자 hog@

김홍제의 목요칼럼

교사 10명 중 9명이 무혐의인 아동학대 신고

“학생에 대한 선한 동기를 가진 교사들이 악의적 소송에 쓰러지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10명 중 9명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이다. 자녀가 그 억울한 교사라면 그 상황에서 누가 분노하지 않겠는가. 교직을 떠나고 싶다는 통계 증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교사의 일상은 마비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혼자 대응해야 한다는 고립감, 형사 절차와 수사에 대한 부담과 수치심, 낙인 효과를 교사는 가장 힘들어한다.

통계에 따르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상당수가 수사와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 신고된 교사 10명 중 9명 가까이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안에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범죄 혐의자로 살아야 했던 교사들의 지난한 고통이 담겨 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거짓 비난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신고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허위·과장 신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제도적 보완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는 생활지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아동학대 신고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곧바로 범죄 혐의로 연결되는 현실은 교육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 교권 침해 신고센터에는 우울증 치료와 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무혐의라면 제도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살펴보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바라보게 만들고, 교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과 거리를 두게 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아이를 걱정하는 교사보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면 현장 교육의 질적 하락은 당연하다.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교육활동과 학대를 구분하는 전문 심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1차 검증장치가 필요하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포함된 사안은 교육 전문가와 아동 전문가가 먼저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정서적 아동학대 적용도 교육 상황에서는 제한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악의적 허위 신고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정당한 신고는 보호해져야 한다. 현재의 송마방이 처벌이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교육은 임시 중심·불평등·창의성 억제 구조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라는 드문 공격이다. 학생에 대한 선한 동기를 가진 교사들이 악의적 소송에 쓰러지고 있다.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교사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막을 마련해야 한다. 악의적 허위 신고라는 드문 살상 공격을 막아 주어야 한다.

홀로 맨몸으로 살상적인 드론에 맞서라는 것은 교육을 최전선에서 수행하는 교사에게 너무도 가혹한 내물림이다. 학생에게 안전이 제일일듯이 교사에게 안전한 교직 활동도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김홍제
충청남도교육청전로통합교육원장

한원시스템

(사) 한국 실내 공기질 관리 기술협회 회원사

HW SYSTEM

◆ 환기장치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저희 한원시스템은 다수의 학교와 관공서,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끝!

전열교환기(환기장치)
필터교체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세요!

환기장치유지/관리 이제 전문기업에 맡기세요!

문의전화 : 1577-2036

12세 캐릭터 크리에이터 레아 지하드, 발명 IP 우수상 수상

레아 "아름다운 한국의 美 알리는 글로벌 크리에이터 될 것"... SLBS·한국휴먼케어와 잇따른 협업

프랑스 다문화 가정 출신의 만 12세 캐릭터 크리에이터 레아 지하드가 지난 6월 15일 교육연합신문이 수여하는 '발명 IP 우수상'을 수상하며 차세대 글로벌 창작자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상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캐릭터 개발과 지식재산(IP) 분야에 대한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온 레아의 활동을 높이 평가해 마련됐다.

■ "그림을 그리는 일이 발명이자 IP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현재 부산의국인학교 6학년 재학 중인 레아는 수상 소감을 통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캐릭터를 만드는 일이 '발명'이자 하나의 지식재산(IP)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다"며, "이번 상을 계기로 더욱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레아는 또래 학생들과 차별화된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전통미술의 색감과 문양, 분위기를 현대적인 캐릭터 디자인으로 재해석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다.



로 재탄생

레아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성장하며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한국 전통미술의 색감과 문양이 가진 아름다움을 저만의 밝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표현하고 싶었다"며,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며 따뜻함과 개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레아는 SLBS와 협업해 경복궁을 모티브로 한 스마트폰 케이스를 선보였으며, 개성 넘치는 고양이 캐릭터 굿즈 제작에도 참여해 호평을 받았다.

시선

이번 수상에서 주목받은 또 하나의 성과는 시니어 교육 콘텐츠 분야 진출이다. 레아는 한국휴먼케어와 협업해 노인 인지학습지 메인 캐릭터를 디자인했다.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와 함께 산책하는 밝고 친근한 할머니 캐릭터는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친숙함을 전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레아는 "어르신들이 보는 콘텐츠도 즐겁고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캐릭터를 만들었다"며, "제 그림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용기와 행복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상표 출원까지... 어린 크리에이터의 새로운 도전

레아의 창작 활동은 단순한 그림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휴먼케어와의 협업 과정에서 교육·복지 서비스 브랜드 'EKATO'와 식품 관련 도형 상표 등 2건의 상표가 출원되며, 어린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이 실제 지식재산권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레아는 "처음에는 지식재산(IP)과 상표라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제 작품을 스스로 지키고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과정이 무척 흥미로웠다"며,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책임지고 세

상에 알리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수상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레아는 자신의 꿈을 또렷하게 밝혔다.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이 가진 아름다움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앞으로 캐릭터와 디자인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편, 황오규 교육연합신문 부사대표는 "레아 지하드는 어린 나이에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캐릭터 디자인, 콘텐츠 개발, 상표 출원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K-콘텐츠 시대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사회와 K-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레아 지하드의 도전은 세대를 잇고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창작 모델을 주목받고 있다. 그의 작은 빛에서 시작된 상상력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그려낼지 기대가 모아진다.

이정현 기자 jih@



인천 인명여고, 글로벌 인재 육성

스웨덴 교사단 방문 맞이 교육교류 및 수업참관 실시

인천 인명여자고등학교(교장 홍종우)는 상호 교육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글로벌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6월 18일 스웨덴 Backangsgymnasiet 고등학교 교사단을 맞이해 수업 참관 및 교육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스웨덴 Backangsgymnasiet 고등학교의 수학 및 과학 교사 10명이 인명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마련됐다. 방문 교사단은 학교 급식실에서 중식을 함께한 후, 각 교실과 영어전용교실 등 주요 교육 시설을 순회하며 한국의 선진화된 교육 환경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서 진행된 수업 참관에서는 1학년 영어 수업과 2학년 수학 수업을 함께 했다. 스웨덴 교사단은 한국의 실제 교수학습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학생들과 역동적으로 소통하며 한국의 교육 방식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방문의 핵심 일정으로 마련된 '양국 교사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시설 참관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양국 교사들은 각국의 교육 시스템과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 학교 운영 현황 및 당면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며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연대를 다졌다.

홍종우 교장은 "스웨덴의 우수한 교사단과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교사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교육 혁신을 위한 지혜를 모은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교류 기회를 확대해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글로벌 농업 교육과정의 미래를 찾다

호남원예고, 日·佛서 상반기 국외현장실습 성공적 마무리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미래 농업선도고교로서 대한민국 농업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호남원예고등학교(이하 호남원예고)가 학생들이 글로벌 농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융합형 국외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이번 국외현장실습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주관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나주 호남원예고 학생들이 선진 농업기술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 안목을 넓혀 차세대 청년 창업농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원예고는 지난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된 '일본 원예 1기 실습(원예과 학생 13명, 인솔교사 김OO)'과 6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간 진행된 '프랑스 농업경영 1기 실습(원예과 학생 13명, 인솔교사 김OO)'을 연달아 마치며, 이론 교과와 글로벌 영농 현장을 잇는 입체적 현장 중심 교육(Work-Based Learning)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이정례 교장은 이번 연수의 취지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내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다각적인 시야를 넓힌 이번 연수가 청년 장

농업으로서의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계 농업의 흐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글로벌 교육 기회를 아낌없이 제공하겠다"라고 강력한 교육 철학을 밝혔다.

일본 연수단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과 6차 산업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20대 청년 후계농이 운영하는 '아마진 농원'을 찾아 사계절 효율적인 작부체계와 경영 방식을 학습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요마루엔'을 방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는 '유니버설 농업' 철학을 접하며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슴에 새겼다.

프랑스 연수단은 '짜르페 농업 회의소'와 '라 제르미니에르 국립 농업학교'를 방문해 선진국의 청년농 지원 정책과 전문 교육 체계를 짚어봤다. 아울러 농기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동조합 'CUMA'와 세계적인 공영도매시장 '파리 헝지스'를 거처며 선진 유통망과 농민 중심의 자립 공동체 제도를 심도 있게 관찰했다.

이번 상반기 연수의 성공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반기 국외 현장실습 역시 더욱 넓고 깊고 안전한 글로벌 창의 융합 교육과정으로 준비해 미래 청년창업농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기정 기자 2580news@daum.net

남열 해돋이 바다에서 배우는 서핑

고흥 봉래초, '마을·학교 연계 서핑 교실' 운영

전남 고흥 봉래초등학교(교장 조재상)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서 전교생 26명을 대상으로 '마을·학교 연계 서핑 교실'을 운영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키우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바다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다

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지역 서핑 전문 교육기관인 고흥원데이서프와 연계해 운영한다. 학생들은 서핑의 기본 원리와 안전 수칙을 배우는 이론교육을 시작으로 지상 훈련과 바다 실전 서핑에 참여한다. 지난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학생 2명당 강사 1명을 배치해 맞춤형 지도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다. 학년별 일정에 따라 1~2학년은 6월 10일과 7월 9일, 3~4학년은 6월 24일과 7월 10일, 5~6학년은 6월 15일과 16일에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봉래초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총 8시간을 편성했으며, 학생들은 학교 통학 차량을 이용해 체험 장소로 이동한다. 체험 전에는 교통안전, 승차차 질서, 현장 체험학습 예절, 시설물 보호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 후에는 소감 나누기와 보고서 작성 활동을 통해 배움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김중철 기자 2580news@daum.net

100% 참자연 그대로 참자연 그대로 쌀국수

보리, 현미 쌀국수 밀가루 NO!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건강한 국수

- ※ 청원생명쌀로 만든 친환경 쌀국수
- ※ 청주시 학교급식 선정 제품!
- ※ 밀가루 0%, 100% 국산 곡물만 사용
- ※ HACCP 인증 시설 + 특히 받은 국수 제조 기술

※ 우리 아이 급식, 이왕이면 쌀로 만든 건강한 국수로! 밀가루를 전혀 섞지 않고 국내산 곡물만으로 만든 쌀국수! 남은 쌀 소비 + 학생 건강까지 생각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학교 답례품, 선물용으로도 딱!
정성 담은 건강한 국수,
돌잔치,행사,감사 선물로도 인기!

납품,구매문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북로 836. 1층
대표 윤충근 ☎ 010-5485-4748



서울중부교육지원청, 문화유산 체험 원스톱 지원

'중부 문화유산답사기' 프로그램 운영... 희망 초등학교 8개교 학생 320여 명 참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6월 23일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상반기 중부 문화유산답사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22일 서울광희초등학교를 시작으로 8월 26일 서울남정초등학교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에는 희망 초등학교 8개교 19학급, 학생 320여 명이 참여한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교실 안 배움을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특히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스톱 플래커지' 지원 체계를 도입했다.

원스톱 플래커지는 체험 프로그램과 이동 차량, 안전요원, 전문 해



▲'중부 문화유산답사기' 현장체험학습. 사진 왼쪽부터 서울광희초등학교(6월 22일)와 서울원효초등학교(6월 23일) 체험일 모습.

설사를 교육지원청이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경복궁, 창덕궁 등에서 전시 관람과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프로그램 첫 일정에 참여한 서울광희초등학교와 서울원효초등학교 학생들은 교육지원청이 지원한 차량과 안전요원의 인솔 아래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근정전과 경회루 등을 둘러보고 교과서 속 역사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최도규 교육장은 "이번 문화유

산답사기는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역사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협동심과 배려심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학생들이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 진학 설명회

정근식 교육감 "장애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 체계 지속적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6월 25일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을 위한 대학 입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장애학생에게 대학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과 장애 특성화 대학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정보 격차를 줄여 학생의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참석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 두 차례 운영할 계획이다.

동부권 설명회는 6월 30일 경기 고등학교 화동관에서 열렸다.

서부권 설명회는 7월 9일 관악 고등학교 소강당에서 열린다.

두 설명회는 모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7개 대학이 참여한다.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강남대학교, 강동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안산대학교, 한경국립대학

교, 협성대학교 등 6곳이다.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호산나 대학도 참여한다.

각 대학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과 교육과정, 학생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행사는 대학별 입학 설명회로 시작한다. 오후 5시 20분부터는 대학별 1대1 개별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참석자들은 대학 관계자와 직접 상담하며 학생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

는 권역별 운영으로 학부모와 교사가 보다 편리하게 참여하고 학생에게 적합한 대학과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진로 희망에 맞는 맞춤형 진학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 체계적 강화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위해 연극 '정거장' 무료 관람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6월 26일 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연극 '정거장' 무료 관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 마음건강 종합 지원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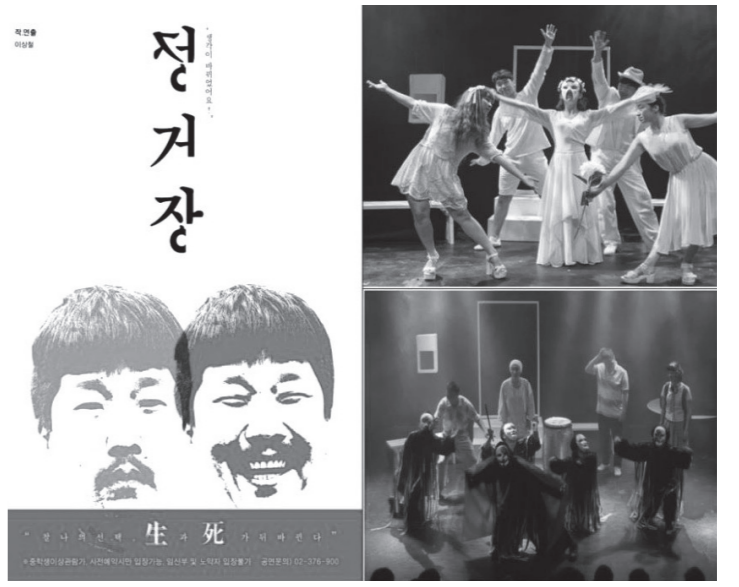
문화·예술을 매개로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공감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극단 버섯이 선보이는 연극 '정거장'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 영혼들이 머무는 정거장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되돌아보는 작품이다.

공연은 6월 29일부터 7월 16일까지 다리소극장에서 열린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와 각종학교(중·고 과정) 학생 4200여 명이 학년과 학급, 동아리 단위로 무료 관람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방부터 위기 대응, 치료 연계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G.R.I.P



서울학생 생명사랑 긴급대응체계를 통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선다.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 보고하면 24시간 대응 전문인력인 응급위기대응관이 학교 현장에 출동해 개입과 보호 조치를 지원한다.

학생의 심리·정서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초·중학교 130개교를 대상으로 '마음EASY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심리

검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전문상담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도 함께 운영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연극 관람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누구나도 홀로 아파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촘촘한 마음건강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생명지킴이 학부모 연수·코칭

맞춤형 양육 코칭 통해 정서 위기 자녀 마음건강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6월 23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 북부 마음이음365 생명지킴이 학부모 연수·코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정서 위기 자녀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맞춤형 양육 코칭을 통해 학부모의 소통 역량과 가정 내 생명지킴이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1부에서는 김연수 강사가 '아이의 신호를 읽는 부모, 아이의 힘이 되는 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

했다.

강연에서는 자녀의 마음건강 위기 신호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소그룹 양육 코칭을 운영했다. 양육 코칭은 우울·불안, 자해·자살 충동, 등교 거부·초기 비행, ADHD·충동 조절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5개 소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참석 학부모들은 사전에 선택한 관심 분야별로 상담 전문가와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에서는 자녀와의 갈등과 양육 고민, 학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해

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자녀와의 소통 방법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고, 소그룹 코칭을 통해 양육 고민을 구체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쌍방향으로 진행된 양육 코칭이 특히 유익했다"라고 말했다.

김태식 교육장은 "이번 연수 체계로 학교와 가정, 교육지원청,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서울과학고, 블랙홀 열역학 연구 SCI 국제학술지 게재

김태일 교장 "학생들이 연구 역량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서울과학고등학교(교장 김태일)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수행한 블랙홀 열역학 연구 성과를 세계적인 SCI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며 주목받고 있다.

서울과학고는 학생들과 권용준 물리교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논문이 물리학 분야 SCI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Modern Physics D에 게재가 확정됐다고 6월 22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장방정식에서 도출한 제약 조건 없는 블랙홀 열역학 정식화'다. 이번 연구는 블랙홀 열역학 제1법칙을 중력장 방정식으로부터 직

접 유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기존처럼 블랙홀 부피 변화 대신 '엔트로피 변화'를 장방정식에 도입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해 회전하거나 전하를 띠는 복잡한 블랙홀에서도 추가 제약 조건 없이 열역학 제1법칙이 자연스럽게 성립함을 최초로 증명했다.

연구 결과는 중력을 열역학적 현상으로 해석하는 '장방 중력' 이론의 확장에도 중요한 학문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대학이나 외부 연구기관의 지원 없이 학교 교육과

정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학생들은 R&E 프로그램과 졸업논문, 창의융합특강 등 교내 연구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연구를 수행했으며, 교사의 밀착 지도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김태일 교장은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교사와 긴밀히 협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연구 역량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지사 및 대리점 모집

티에프메디칼 (주) 점주님만의 혜택

- 높은 마진율
- 노후대비
- 확 줄어든 재고부담
- 홍보 및 행정지원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살리는 건 그 어떤 수술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티에프메디칼과 점주님들입니다.

관심 있으신 미래 점주님들은 아래로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 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생명을 살리는 시간 단 4분



BIOTA-3 수동식 심폐소생기

전라남도 213개 (초·중·고) 학교 시범 설치



COMPANY : 티에프메디칼(주)
대표번호 : 1899-0971
Tel : 031)941-0970
Fax : 031)949-8445
ADDRESS :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39(우. 10882)
E-MAIL : tfmedical@naver.com

Q 당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A 수동식 심폐소생기(Biota-3)는 전문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흥과학고, 미래형 과학교육 거점 조성”

문정복 의원,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설명회... 학습환경 조성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흥과학고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설명회를 열고, 학부모와 시민 의견을 향후 설계 과정에 반영해 학생 중심의 미래형 과학교육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6월 25일 밝혔다.

공개 설명회는 지난 6월 17일 은계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설명회는 설계공모 당선안의 주요 내용과 설계 의도를 공유하고,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문정복 의원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 학부모와 시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흥과학고 설계공모 당선안의 주요 내용과 사업 개요, 추진 경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설계공모 당선안은 자연과 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융합형 캠퍼스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교사동과 기숙사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창의적 탐구와 협업이 가능한 학습공간, 안전한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열린 공간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왔다.

천체관측실과 창의 탐구공간, 친환경 녹색학교, 무장애 환경, 스마트 교육환경도 주요 설계 방향에 반영했다.

학부모들은 시흥과학고가 은계지구 내 학교부지와 주민복합시설, 체육시설 등과 함께 조성되는 만큼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정복 의원은 “시흥과학고는 학교 신설을 넘어 시흥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바이오,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와 지역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시흥과학고가 미

래산업에 이룰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과학고는 시흥이 AI·바이오 특화 교육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학교와 보행환경, 교통, 공원, 생활체육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미래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미래 과학교육은 탐구와 협업, 창의성과 안전이 함께 보장되는 교육환경에서 가능하다”며 “시흥과학고가 학생 중심 미래형 과학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과학고는 시흥시 은계지구 대야동 642-199 일원에 조성된

다. 학교는 총 2만 7976㎡ 규모로 계획됐다. 교사동은 지상 4층, 기숙사동은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다. 15학급, 학생 300명 규모의 과학고와 157실 규모의 기숙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개교 목표는 2029년 3월이다.

시흥과학고 인접 부지에는 시흥북부 실외체육운동장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문정복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통해 기존 유치원 부지를 체육부지로 변경하고 기존 체육부지와 통합해 부지를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향후 선형 변경과 추가 부지 확보를 통해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트래킹 실외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병선 기자 kbs@

고양시, 청소년 대상 ‘고양항공잡월드’ 본격 운영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과 협력 초·중·고 대상 항공·우주·UAM 진로체험

고양특례시는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과 함께 ‘고양항공잡월드’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고 지난 6월 19일 밝혔다.

고양항공잡월드에는 2026년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항공·우주·도심항공교통(UAM) 분야의 체계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열린 첫 프로그램에서 참가 학생들은 4시간 동안 전문 교관의 지도 아래 다양한 시뮬레이터와 체험 장비를 활용해 항공산업 관련 직무를 직접 경험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실제 민항기 조종석 환경을 구현한 A320 시뮬레이터를 통한 이착륙 체험을 비

롯해 UAM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가상 비행, 항공교통관제사의 역할을 익히는 관제 시뮬레이터, 고정의 무인기 원격 조종을 경험하는 무인기 시뮬레이터, 드론 추구 등 모두 5개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항공기 조종 원리와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항공교통관제 절차, 무인항공기 운용 기술 등을 체험 중심으로 학습하며 미래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현지 조종사와 한국항공대학교 멘토단이 참여하는 1대 1 진로 멘토링도 함께 진행됐다.

학생들은 항공 분야 진학과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로 설계에 필요한 조언을 들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A320 여객기 조종석에서 직접 이

륙 과정을 체험해 보니 실제 조종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이번 경험을 계기로 항공 분야에 대한 꿈이 더욱 확고해졌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관계자는 “고양항공잡월드가 미래 항공우주 시대를 이끄는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참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항공잡월드는 오는 12월까지 총 10회 운영될 예정이며, 고양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회차별 2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료와 재료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김병선 기자 kbs@

용인 매봉초, 사고 팔고 나누며 배우는 자원순환 교육

‘그린마켓 챌린지’ 통해 경제·환경교육 잇는 탄소중립 실천의 장 마련

경기도 용인 매봉초등학교(교장 황현금)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교생이 참여하는 ‘2026 매봉 그린마켓 챌린지’를 운영하며 경제교육과 환경교육을 연계한 실천 중심 교육활동을 실시해 경제·환경 융합 교육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환경 보전과 합리적 경제 소비의 가치를 동시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교육 시간과 환경교육 시간을 통합 운영해 학생들이 자원의 소중함을 배우고 탄소중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1주 차 ‘초록 경제 주간’에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며 나눔의 기쁨을 경험했다. 또한 물건의 재사용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소비 습관과 경제 활동의 기본 원리를 익혔다. 이어서 ‘자원 순환’이라는 환경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행사 기간 판매된 물품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 재사용

됨으로써 자원 순환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계기가 됐다.

2주 차 ‘생태 환경 주간’은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잔반 제로 챌린지’, 학교 깃대종 선정 활동 등 다양한 생태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급식 잔반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며 음식물쓰레기 감축의 중요성을 체감했고, 학교 주변 생태 환경을 조사해 매봉초를 대표할 깃대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의 가치를 배웠다.

황현금 교장은 “학생들이 경제 활동과 자원 순환, 탄소중립 실천을 직접 경험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생태·경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봉초는 용인시 ‘지구를 참여하며 음식물쓰레기 감축의 중추’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시범학교로 3년간 운영 중이며, 생태 환경 동아리 ‘푸른 마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 전환 교육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신상민 기자 ssm@

UAE 교육부 차관, 수원하이테크 방문

한국형 첨단 직업교육 참관 협력 가능성 모색

아랍에미리트(UAE) 교육부 대표단이 지난 6월 18일 수원하이테크 고등학교(교장 이상만)를 방문해 첨단 직업교육 현장을 견학하고 양국 간 교육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교육청과 UAE 교육부 간 교육행정 및 미래 직업교육 분야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모하메드 할자 알 카심(Mohammed Hamza Al Qasim) UAE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대표단은 수원하이테크의 교육 비전과 특성화 교육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학교 측은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체계 ▲산학협력 기반 취업 프로그램 등 산업 수요에 맞춘 철저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대표단은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실습실 등 주요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실습 수업을 직접 참관했다. 특히, 최신 장비를 활용한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과 산업체 수요를 적극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모하메드 할자 알 카심 UAE 교육부 차관은 “수원하이테크의 우수한 교육시설과 현장 중심 직업 교육 시스템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미래 산업을 이끄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의 마이스터고 모델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만 교장은 “이번 방문이 양국 간 교육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술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ssm@

성남 위례해솔유치원, 수상안전교육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안전 의식·위기 대응 능력 향상

경기도 성남 위례해솔유치원(원장 김지영)은 지난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유아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찾아오는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전문 강사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유아들이 실제 상

황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안전수칙을 익히고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놀이와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안전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등원 시 ‘안전체합의 날’ 아치를 통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배 모양 에어바운스에서 바이킹 놀이를 통해 선박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체험했다.

이어지는 체험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방법과 선박 대피 요령을 실습하며 수상 안전수칙을 배우고, 구명환을 활용한 구조 체험과 태풍 대처 체험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올바른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었다.

이번 수상안전교육은 단순한 이론 중심의 안전교육을 넘어 유아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상민 기자 ssm@

PMZ

Pozzalan Mat Zone

평균 98.2%, 원적외선 방사율 90.4%의 친환경 매트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포즐란매트존입니다.

서귀포시
‘치유의 숲’ 조성

용인시
‘여성길(Earthing)’ 조성

의정부시
‘맨발로(路) 조성

▶ 4줄란 매트길의 특성

1. 원적외선 방사
세포조직을 활성화시켜
온열효과로 인해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 항균
포즐란 분말을 표면에
도포하여 불필요한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준다.

3. 탈취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막
역할을 하여 기존제품 대비
부식속도가 느리다.

4. 친환경성
천연소재로서 자연환경과
이질감 없는 경관의 연출이
가능하고 수요가 높다.

UARU (주)유아르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교산동막길 108-36 T. 033-808-7013 www.uaru.co.kr

부산동성고, 제63회 부산과학전람회 14년째 수상

특상·우수상·단체상 수상... 과학고 제외한 중·고교 중 '사실상 종합 1위' 달성

부산동성고등학교(교장 김희석)는 지난 5월 22일 부산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사이언스홀에서 열린 '제63회 부산과학전람회'에서 본교 영재학급 연구팀들이 산업과 에너지 부문 특상(1위), 생물 부문 우수상(2위) 2팀, 중등부 단체상을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6월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성과는 과학고를 제외한 일반 중·고등부 부문에서 사실상 최고 순위에 해당하는 성과로, 부산동성고 영재학급의 높은 과학 탐구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쾌거로 평가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부산과학전람회는 지역 내 가장 권위 있는 학생 과학 연구 대회 중 하나다.

■ 사회적 현안 해결과 지역 맞춤형 해양 연구 돋보여

이번 대회에서 산업과 에너지 부문 특상을 수상한 연구는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 구현 및 판단 근거 분석"

이다. 최근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금융사기 및 성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딥러닝 기반 탐지 모델을 직접 구현하고, 판단 근거를 시각적으로 분석하여 AI의 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한 점이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상을 수상한 두 학생은 수상 직후 기쁨과 함께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2학년 안지원 학생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우리가 배운 인공지능 기술로 직접 해결해 보고 싶었다"라며,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고성능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데이터 분석 및 판단 근거 시각화를 담당한 김태영 학생은 "단순히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AI가 어떤 근거로 가짜 영상을 판별했는지 논리적 근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지만 큰 보람이었다"라며, "우리의 연구가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찬 소감을 밝혔다.

생물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 2개 팀은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해양 생태 연구를 선보였다. "바위에서 추출한 프로바이오틱스 활성 평가 및 rR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활성 균주 동정과 그에 따른 활용 방안 제시"연구(3학년 신경민, 2학년 김서울)와 "흡입에서 분리·배양한 미생물 균주의 분리·동정 및 생리특성 분석"연구(3학년 정서호, 2학년 제민건)는 부산 연안에서 채취한 해양 생물 유래 미생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지역 밀착형 연구로서, 해양 자원의 과학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았다.

■ 14년 연속 입상, 명문 과학 거점 학교로 우뚝

부산동성고의 이번 쾌거는 일회성 성과가 아니다. 부산동성고는 지난 2013년부터 2026년까지 14년 연속으로 부산

과학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해 지속적으로 입상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특히 올해는 출품작 모두가 특상과 우수상이라는 상위권 상을 휩쓸며 과학교육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꾸준하고 압도적인 성과의 배경에는 학교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부산동성고는 학생들이 정규 수업 후나 방학 중에도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실험실과 컴퓨터실을 '연구 전용 공간'으로 상시 제공했다.

또한 기자재 확충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학생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람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주도적 R&E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AI 및 해양 과학 등 첨단 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6월 23일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63회 부산



과학전람회의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한 부산동성고등학교 김희석 교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이론을 넘어, 실제 현장의 문제를 AI와 과학 기술로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값진 결실"이라며, "과학고를 제외한 중·고등부에서 사실상 1위에 해당하는 수상은 부산동성고 영재학급 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목고 못지않은 열정으로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해 일반계고의 지력을 보여준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연구 성과들이 단순한 입상에 그치지 않고 후속 연구와 지역 과학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자기주도적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현장 소감을 전했다.

이정현 기자 jh@

양산풍경요양병원, 힐링콘서트 '내 마음의 정원 풍경' 성황

암 완치 환우 이상영 사회 맡아 희망 전파... 음악과 감동으로 하나 된 치유의 무대

경남 양산시 양산풍경요양병원(원장 제창민)은 6월 23일 오후 5시 30분 병원 공연장에서 환우와 보호자, 의료진이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내 마음의 정원 풍경'을 개최하며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시간을 선사했다.

이번 음악회는 암 투병과 치료 과정에서 지친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문화치유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무대에는 현악4중주단 소울메이트 앙상블이 초청돼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바이올린 노수진·박영주, 비올라 임재호, 첼로 박우영으로 구성된 앙상블은 클래식 명곡 '사랑의 인사', '유도레스크'를 비롯해 '엄마야 누나야', '풍당풍당', '섬집 아기', '고향의 봄', '파란마음 하얀마음' 등 친숙한 곡들을 연주하며 공연장을 따뜻한 감동으로 물들였다.

특히, 이날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닌 이야기와 추억, 희망이 함께하는 치유의 무대로 펼쳐졌다. 소울메이트앙상블의 박영주 지휘자는 곡마다 담긴 의미와 사연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들



려주며 환우들과 깊은 공감의 시간을 만들었다.

박 지휘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동요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으며, 환우들은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잠시 병마의 고통을 잊고 음악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았다.

무엇보다 이날 행사는 최근 암 완치 판정을 받은 풍경요양병원 환우 이상영 환우가 사회를 맡아 진행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이상영 환우는 오랜 투병과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한 완치 환우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우들에

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회를 맡은 그는 차분하고 따뜻한 진행으로 공연의 감동을 더했으며, 현재 치료 중인 환우들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희망의 날이 온다"는 살아 있는 희망의 증거가 됐다.

특히 이상영 환우는 사회 진행 중 투병생활을 회상하며 "가장 힘들고 지쳤던 순간마다 친언니 같고 어머니 같은 임미숙 언니가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셨다"며, "언제나 '괜찮다. 반드시 좋아진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손을 잡아주셨던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힘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서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며 "임미숙 언니의 사랑과 응원,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함께 아픔을 나누었던 환우들이 있었기에 완치라는 기적을 만날 수 있었다. 지금도 치료 중인 모든 환우 여러분께서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례 객석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상영 환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공연장을 찾은 환우들과 보호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으며, 곳곳에서는 감동



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이어졌다.

제창민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풍경요양병원은 질병만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라 환우들의 삶과 마음까지 돌보는 치유의 정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음악회가 환우 여러분께 작은 위로를 아닌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완치 판정을 받은 이상영 환우가 직접 사회를 맡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은 환우들에게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선물이 됐다"며, "풍경요양병원 의료진은 환우 여러분이 건강한 일상으

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며, "오늘 소울메이트앙상블이 전한 선율과 이야기가 환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환우들은 공연 내내 박수와 미소로 화답했으며, 음악과 이야기, 그리고 완치의 희망이 어우러진 이날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모두의 마음을 연결하는 특별한 치유의 시간으

로 기억됐다.

한편, 풍경요양병원은 환우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음악회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심리치유 활동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중심의 따뜻한 의료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힐링콘서트는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완치의 기쁨,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로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아름다운 치유의 선율을 남겼다.

황요기 기자 hog@

PA·AV 산업의 뉴리더 (주)케빅은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약속드립니다.

학교방송시스템 우수제품기업 주식회사 케빅

장영실상 수상

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등록

우수디자인 선정

우수발명품

GS인증 1등급

G-PASS 인증

최우수등급
조달청우수제품지정업체

[부안 교육문화회관]

[전남 예술고등학교]

[신남 중·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서석홀]

[철원 고등학교]

[서울 매봉초등학교]

KEVIC
Professional Audio

주식회사 케빅
www.kevic.com

본사 : 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105, 1동 606호 (민락동, 의정부 더리브 센텀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서울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도곡동 449-8)
 공장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곡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제품문의 **1661-2669**

3선 도성훈 교육감, '읽견쓰시학생성공' 본격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갑영 前인천대 부총장·부위원장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 선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 최초로 3선에 성공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새 임기 준비위원회가 공식 명칭을 '읽견쓰시학생성공 추진위원회'로 정하고, 6월 22일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8대 핵심분과 및 4대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정책자문단 대표 등 34명이 참석한다.

추진위원회는 '읽견쓰시AI로 학생성공시대 완성'을 주된직선 5기 인천교육 비전으로 삼고,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추진계획 수립과 정책 방향, 예산 등의 조정 역할을 맡아 7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위원회는 이갑영 前인천대학교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8대 분과와 4대 특별



위원회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교사·학생·학부모·청년·AI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참여하는 개방형 준비위원회'로 이끌 나갈 계획이다.

이갑영 추진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 드린 약속이 학교 현장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인천 학생의 성장과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구체적인 실행 방

안과 단계별 재정 로드맵을 촘촘히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승한 부위원장은 "AI 시대에 창의력과 올바른 인성을 두루 갖춘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육교류 활동에 힘쓰겠다"라며, "인천교육의 핵심 가치인 '읽고·견고·쓰는(읽견쓰)' 실천을 시작으로 분과별 협의회와 교육청 부서 간 조율을 거쳐 공약 실천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선택은 인천교육의 중단 없는 발전을 향한 엄중한 명령"이라며, "법이 허락한 마지막 임기인 만큼 더 깊은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출범식 직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협의회와 교육청 부서 간 조율을 거쳐 공약 실천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영종고, 학부모 참여 역량 강화

직접 발로 뛰어 숨은 배움터 발굴 지역연계 교육 실천

인천영종고등학교(교장 이재성) 학부모회는 지난 6월 19일 학부모들이 직접 우리 마을의 교육 자원

을 발굴하고, 지역연계 교육을 통한 학부모 역량 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부모회가 주도적으로 인천 영종 지역 내 숨은 배움터를 발굴해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활동에서 학부모회가 직접 발굴한 지역의 전문 강사

를 초빙해 '풍경(중)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지역 강사의 지도 아래 손수 풍경을 제작하며 문화적 소양을 기르고, 인천 영종 지역이 가진 인적·물적 교육 자원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용섭 기자 ays@

'배움에서 나눔으로' 학부모가 이끄는 생태 선순환

인천논현초, 가정-학교 잇는 자원순환 교육 릴레이 전개

인천논현초등학교(교장 윤원병) 학부모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이끄는 자원순환 환경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천논현초 학부모회가 자원순환의 가치와 교육 방법을 먼저 주체적으로 학습한 뒤, 이를 다시 학교 끝나무들에게 재교육하는 '배움과 나눔의 선순환' 방식으로 기획돼 지역연계 교육과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14명의 학부모회 회원들은 직접 강사로 나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뚜껑을 녹이고 성형해 친환경 키링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실습을 지도했다. 학생들은 일상 속 쓰레기가 쓸모 있는 생활 소품으로 변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지속가능발전의 자원순환의 의미를 몸소 체득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랫동안 단절되고



위축됐던 가정과 학교의 교육적 소통을 다시 공고히 연결하는 훌륭한 본보기가 됐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 교육 참여를 통해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와 협력을 한층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적 가치를 학부모회 중심의 자발적 실천 공동체 활동으로 연결했다. 가정과 일상에서 마주하는 쓰레기 문제를 학교 교육 현장으로 가져와 선

순환의 고리를 완성한 셈이다.

윤원병 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교육적 가치를 학부모회가 배움과 나눔의 선순환 구조로 몸소 증명해 보인 매우 뜻깊은 기회였다"라며, "지구촌의 기후위기는 거대한 현상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학교와 가정의 플라스틱 문제'로 인식해 학부모가 직접 학생들과 함께 대안을 실천하고 성장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역연계 교육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혜숙 학부모회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전해줄 수 있어 교육의 주체로서 큰 보람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라며, "그간 단절됐던 학교 교육활동에 주도적으로 동참해 아이들의 미래 실천으로 이어지는 생태적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 신현중, 기업가정신 배운다

'창업스쿨 36.5℃' 성공적 마무리... 수익금 기부까지



인천 신현중학교(교장 김남숙)가 2026학년도 1학년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과정으로 운영한 '창업스쿨 36.5℃'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기업가정신 교육과 나눔 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강영진 교사는 아산나눔재단과 크리에이티브의 지원을 받아 8주간 창업스쿨 36.5℃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창업의 기본 개념은 물론 기업가정신, 혁신, 협업, 나눔의 중요성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4개 팀으로 나눠 직접 창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제

품을 제작한 뒤 판매까지 진행하며 실제 창업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녹차로 만든 발냄새 제거 제품', '실리콘 간지 쓰레기통', '안전한 야광 우산 꽃이', '인천 여행 상품' 등을 제작해 학생과 교직원

을 대상으로 판매했으며, 당초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판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면서 판매 시작 이틀

째인 5월 12일 준비된 물품이 모두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판매를 통해 학생들은 총 15만4,600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참여 학생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판매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라면 10박스

로 마련돼 푸드마켓에 전달됐다. 또한 신현중학교 전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도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나눔 활동에 따뜻한 의미를 더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녹차로 만든 발냄새 제거 제품'을 만든 김정은 학생은 "어름칠 발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 친화적인 탈취제 성분을 찾아냈고 녹차와 제올라이트 성분을 혼합해

제품을 만들었다. 실험 결과 냄새가 미약하게 제거되긴 했으나 완벽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는데, 성분

혼합을 달리했더니 효과가 증대됐다"라며, "다소 아쉬운 점은 제올라이트의 원가가 너무 비싸서 제품 판매가격이 올라 원가 절감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참여 학생들은 "판매 수익금을 전액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김남숙 교장 "이번 창업스쿨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기 어려운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도전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사랑, 정성, 영양, 행복 가득담아 아빠의 마음으로 만든 믿을 수 있는 건강한 '김'

사랑김

엄선된 원초와 유산균 바이오 솔트, 아마씨유로 만든 어린이용 김

다들김

엄선된 원초와 유산균 바이오 솔트, 참기름으로 맛을 낸 김

돌자반

엄선된 원초와 유산균 바이오 솔트, 올리브유로 만든 돌자반

김부끄

쌀가루와, 참쌀분말로 만들어 더욱 바삭한 1등 영양간식 김부끄

HACCP FDA NAVER 아빠맘연구소 검색 를 검색해 보세요!

교육공동체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인천초은초, 등굣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운영



인천초은초등학교(교장 최유미)는 6월 23일 오전 8시 20분부터 8시 50분까지 학교 정문 및 쪽문 일대 등굣길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울림 나눔 주간을 맞아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최근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학부모회 학생이 함께 참여해 더욱 뜻깊었다. 캠페인에는 학부모회 회원 18명과 전교학생자치회 학생 15명이 참여했는데, 참가자들은 등교하는 학생

들을 맞이하며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문구가 적힌 피켓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함양과 디지털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등굣길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피켓 문구를 살펴보고 학교폭력 예방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이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시작임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는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알릴 수 있었다.

인천초은초등학교는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예방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존중과 배려가 살아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안용섭 기자 ays@

대전교육청, 통합교육 수업 혁신 시동

첫 도입 통합교육 지원 협력교원 현장 안착 및 협력수업 중심 실행력 강화

대전시교육청은 6월 26일 대전 특수교육원 연수실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60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2026학년도부터 처음 도입과 운영 중인 '통합교육 지원 협력교원' 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학급 내 협력수업의 실제 적용력을 높이고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 체계를 체계화하는 데 목적

이 있다. 협력교원은 일반학교 배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교육원 연계 순회 지원을 통해 통합학급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수는 '섬과 섬을 잇는 다리, 통합교육'을 주제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교육 선도학교인 '정다운학교' 운영 경험을 가진 현장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실제 수업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협력교수 유형과 수업 설

계 방법,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와 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 운영 전략과 협력 과정에서의 문제해결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단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사 간 공동 책임 기반의 수업 문화를 확산해 통합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연수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협력교원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2027학년도 운영 모델을 고

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아특수교육과 어용화 과정은 "이번 연수는 지난 3월 도입된 '통합교육 지원 협력교원'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협력수업이 일상적인 수업 방식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움과 참여가 교실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원호 기자 whh@

요리로 잇는 일상과 문화 '다문화가정 요리 교실'

대전평생학습관, 7월 29일까지 결혼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전평생학습관은 대전지역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9일까지 요리를 매개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성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가정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통 떡과 한과 만들기부터 일상생활에 활용 가능한 한식요리까지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두툰떡, 쌀강정 등 전통 떡과 한과 만들기 실습을 통해 한국의 식문화와 전통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고 밀반찬과 자녀 간식, 삼계탕, 김치, 불고기 등 가정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한식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며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3기, 총 36회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10개국 출신의 다문화 이주여성 45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전평생학습관 우장영 관장을 직접 만들어 보며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이는 데

체이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소통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원호 기자 whh@

대전교육연수원, 교사 미래 교육 역량 강화 지원

2026년 유·초등·중등 신규교사 '추수 멘토링 직무연수' 운영



대전교육연수원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유치원과 초등 및 중등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연수원 분원에서 '2026년 신규교사 추수 멘토링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과 초등(특

수 포함) 및 비교과 신규교사 50명, 중등 신규교사(특수 포함, 경력 3년 이하)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수원에서는 인성교육, 사회정서교육, 마약류 중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유치원과 초등 신규교사 과정은 원격(온텐츠)연수 6시간과 집합연수 9시간을 포함한 총 15시간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원격연수에서는 사례 중심 학부모 상담전략, 사례 중심 학생 상담전략,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윤리적 가치 등을 다루었으며 집합연수에서는 참여와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수와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등 신규교사 과정은 원격(온텐츠)연수 14시간과 집합연수 6시간을 포함한 총 2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원격연수에서는 인성교육, 사회정서교육,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교육, 재난예방교육,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교

육 등을 통해 교직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였으며 집합연수에서는 생활지도, 학급경영, 인공지능 기반 수업 설계 및 실습 등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 기반 연수를 실시하여 신규교사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실천적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동료 교사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교직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우원호 기자 whh@

대전교육청, 맞춤형 청렴 사례집 배포

현장 빈출 질의 문답형 정리·교육가족 의견 수렴 기반 활용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청렴 관련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한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청렴 사례집'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학

교운동부 운영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청렴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 이해관계자별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문답형으로 정리해 청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실질적인 판단

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제작 과정에서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 305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와 학부모 안내 필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

자료집은 각급 기관 및 학교에 공문으로 배포했으며, 학부모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가정통신문과 QR코드를 활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우원호 기자 whh@

꿈나래교육원, '동행 프로젝트'로 무료급식 봉사활동

직접 재배한 텃밭 작물 기부 및 무료 급식 조리·배식, 벽화그리기 참여

대전교육연수원 부설 꿈나래교육원은 6월 25일 고등학교 1, 2학년 대안교육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직접 재배한 감자를 비롯한 텃밭 작물을 기부하고 재료 손질과 조리 보조, 배식, 정리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무료급식소 앞 담장에 벽화 그리기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밝고 희망적인 그림을 통해 무료급식소를 찾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지역사회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는 데 힘을 보탰다. 벽화는 단순한 그림을 넘어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담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봉사활동을 마친 뒤 학생들은 '봉사의 의미와 사회적 책임'을 주

제된 한 특강을 듣고 개인별 소감문을 작성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봉사 경험을 되돌아보며 나눔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

'동행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 책임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의 의미가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에 긍정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

드론농구(DRONE BASKETBALL)

하늘 위의 드론스포츠 "드론 농구"

DRONE BASKETBALL: A SPORT IN THE SKY

경기규정 (RULE)

- 팀 구성: 3명의 선수
 - 각 팀 3명으로 구성
 - 실시간 동시 조종
 - 역할 분담 전략 중요
- 경기 시간: 총 3쿼터
 - 쿼터당 2분 진행
 - 쿼터 사이 2분 휴식
 - 작전타임 90초
- 득점 인정 조건
 - 드론의 골대 1/2 이상 통과
 - 위에서 아래로 진입해야 함
- 자동득점 시스템
 - 정확한 점수 측정
 - 실시간 스코어 업데이트
 - 공정성 확보
- 공격 제한 시간
 - 24초 이내 득점
 - 시도 실패 시 공격권 전환
 - 빠른 판단 필요

2025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GLOBAL DRONE SPORTS COMPETITION

일시 : 2025. 8. 9 - 8. 10

장소 : 청주 OSCO 2 HALL

The Future of Aerial Sports Starts with WDSF 하늘 위 스포츠의 미래, WDSF에서 시작된다

WDSF KOREA 글로벌 드론스포츠 국제대회 GLOBAL DRONE SPORTS COMPETITION

일시 : 2025. 8. 9 - 8. 10 | 장소 : 청주 OSCO 2 HALL | 후원 : WDSF, SKYBOT, etc.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

(WORLD DRONE SPORTS FEDERATION)

전화 +82)10-5080-9116, -
이메일 : wdsf9116@naver.com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rone_sports

효와 사랑 전하는 따뜻한 나눔의 날

노은누리유치원, 경로당 방문 행사

노은누리유치원은 6월 24일 유년인성교육 브랜드 '나눔의 날'의 일환으로 경로당 방문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의 날' 행사는 어린이들이 효의 의미를 직접 실천하고 어른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세대간의 유대를 통한 바른 인성을 키우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어린이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준비한 '벚노래' 음악에 맞춰

흥겨운 소고 연주와 한삼춤을 추어 어른들에게 큰 기쁨을 드렸다. 공연 후 작은 두 손으로 어른들의 어깨를 안마 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린이들이 쓴 편지와 함께 영양갱과 수제 비누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라고 큰절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

경로당의 어른 한 분은 "귀여

운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크게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안마까지 받으니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마음까지 따뜻해졌다"라고 말했다.

노은누리유치원 이순천 원장은 "이번 나눔의 날 행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올바른 인성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아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성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원호 기자 whh@



“파크 스크린골프로 건강한 미래를 설계한다”

부산 남구 삼대스포츠 김제규 대표 “생활체육 문화의 새로운 길 열 것”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이 새로운 사회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파크 스크린골프는 전국적으로 동호인 수가 급증하며 가장 주목받는 생활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삼대스포츠(대표 김제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파크 스크린골프 대중화와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선도하며 지역 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삼대스포츠는 단순히 용품을 판매하거나 연습장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 파크 스크린골프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는 종합 스포츠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450에

자리한 삼대스포츠는 파크골프 레슨, 스크린 연습, 전문 용품 판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윈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 대표 파크골프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김제규 대표는 파크골프의 가장 큰 매력으로 접근성을 꼽는다. “골프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있지만 파크 스크린골프는 다르다.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건강관리와 친목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생활스포츠이다.”

실제로 파크 스크린골프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으며 운동 강도가 적절한 중장년층과 시니어 세대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장점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최신 스크린 시스템으로 사계절 연습 가능

삼대스포츠의 또 다른 경쟁력은 최신 스크린 시스템이다. 최근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야외 운동이 어려워 날이 많아지면서 실내 스포츠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대스포츠는 최신 스크린 파크골프 시스템을 도입해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했다.

초보자들은 기본 자세와 스윙을 익히고, 숙련자들은 정교한 거리감과 방향성을 연습할 수 있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 기능은 자신의 플레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레슨·스크린·용품까지 윈스톱 서비스

삼대스포츠는 고객이 파크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숙련 동호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까지 함께한다.

입문자를 위한 기초 교육은 물론 개인별 맞춤 레슨, 단체 레슨, 동호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브랜드의 파크골프 용품도 전문적으로 취급하

고 있다.

클럽과 볼 선택부터 장비 관리 방법까지 세심하게 상담해 주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스포츠를 시작할 수 있다.

김 대표는 “고객 한 분 한 분이 만족할 때까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라며,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지역 파크골프인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김제규 대표는 동의과학대학교 부동산재테크정보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며 교육 분야와 지역사회 발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그는 “스포츠는 건강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웃고 소통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대스포츠는 지역 동호회 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며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에 앞장

서고 있다.

■ 부산을 대표하는 파크 스크린골프 전문기업으로

파크 스크린골프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파크 스크린골프는 앞으로 100세 시대를 대표하는 스포츠가 될 것”이라며, “삼대스포츠가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파크골프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건강한 삶, 즐거운 여가, 행복한 공동체

삼대스포츠는 단순한 스포츠 기업을 넘어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체육 문화 플랫폼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삼대스포츠는 최신 시설과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 고객 중심 서비스를 바탕으로 파크 스크린골프 대중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파크 스크린골프 전문 브랜드로 성장해 나간다는 목표다.

황요규 기자 hog@

김제규

- 삼대스포츠 대표이사·삼대파크골프 사관학교장
- 부산 사상구장애인체육회 이사
- 동의과학대학교 부동산재테크정보과 파크골프 입지 겸임교수
- 前 부산광역시청 공약 전문평가단 위원
- 前 부산·경상 지역일자 청년 CEO 300인 회장
- 前 동국대학교 파크골프 최고경영자과정 지도교수
- 前 대경대학교 스포츠아카데미 파크골프 지도자과정 지도교수

기업탐방 부산동래구 골프존파크 K스크린골프 윤정남 대표

“누구나 즐기는 생활스포츠, 스크린 파크골프의 새로운 문화를 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에 위치한 골프존파크 K SCREEN (대표 윤정남)가 최신 시설과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로 지역 골프인들의 새로운 명소가 떠오르고 있다.

최근 스크린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 생활스포츠로 자리 잡으며 건강과 여가, 친목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골프존파크 파크스크린골프는 최신 골프존 시스템과 프리미엄 시설을 바탕으로 동래권 골프문화의 새로운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파크스크린골프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132번길 104에 자리하고 있으며, 최신 골프존파크 시스템을 도입해 실제 필드와 가장 가까운 생생한 라운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정밀한 센서 기술과 현실감 높은 그래픽 구현으로 정확한 구질 분석과 비거리 측정이 가능하며 국내외 유명 골프코스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

이 큰 장점이다.

또한,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과 세련된 인테리어, 회원 전용 라커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골프를 넘어 사람을 잇는 문화공간

윤정남 대표는 “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의 스포츠”라며, “파크스크린골프가 지역 주민과 골프 동호인들이 함께 어울리고 교류하는 건강한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모신다는 마음으로 최고의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동래를 대표하는 스크린골프장으로 성장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초보자부터 상급 골퍼까지 모두 만족

파크스크린골프는 골프 입문자를 위한 초보 레슨반과 아침운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 서클반과 동호회 활동을 통해 지역 골프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골프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오픈 기념 특별 이벤트 진행

파크스크린골프는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고객 감사 이벤트를 마련했다. ▲단체 서클 이벤트 진행 ▲오픈 기념 선물 증정 ▲회원 전용 라커룸 제공 ▲신규 회원 특별 혜택 제공 ▲아침운동반 30명 한정 모집 ▲초보 레슨반 모집 ▲단체 서클반 모집 ▲K스크린골프 동호회 회원 모집등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골프문화 플랫폼

파크스크린골프는 단순한 스크린골프장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전한 골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정남 대표는 “파크스크린골프를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보답하며 언제나 다시 찾고 싶은 골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골프가 즐거워지는 공간, 사람이 모이는 공간, 골프존파크 파크스크린골프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황요규 기자 hog@

“프리미엄 골프 문화의 새로운 랜드마크!”

GRAND OPEN

온천동래 K SCREEN 오픈

새로운 골프 문화의 시작!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온천동래 K SCREEN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웃고, 함께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공간

온천동래 K SCREEN 이 함께합니다.

문의 및 예약
051-501-0501
010-4005-6564

부산 동래구 미남로 132번길 104

K SCREEN Premium Golf & Premium Life

“당신의 스윙이 특별해지는 곳”

미래를 여는 **형평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오늘 우리 아이들 마음은 어떤가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생의 마음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모든학교 상담(교)사 배치 찾아가는 상담소운영

모든학년 사회정서 교육운영

시 마음일기 + 종합심리 검사지원

응급구조단 위기지원단

학생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사업 + 치료비지원

심리치유센터 '마음치유학교' 병원학교

학생의 **꿈** 교사의 **능치** 부모의 **신뢰**

시민 삶 지키고 부산 미래 준비한 역대 최고 정책의회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4년 의정활동 마무리하는 폐회연... 조례 제·개정 936건 역대 최대 입법 성과 달성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6월 23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폐회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원과, 부산광역시장, 교육감, 관계 공무원, 공기업·출자·출연 기관장,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의정활동 성과영상 상영 ▲의원 재직기념패 수여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교육감 감사패 전달 ▲의장 인사말 ▲축사 및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미래산업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또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현안연구, 법제검토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과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한 단계 높이며 명실상부한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했다.

■ 민생경제와 시민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 전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민안전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원전 안전부터, 전세사기, 공공



요금 부담완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각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BNK부산은행과 협력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민생 성과도 창출하였다.

■ 가덕도신공항·글로벌허브도시 등 부산 미래발전 견인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과 적기 개항을 위해 현장점검과 결의안 채택, 정책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산업은행 이전, 해양수산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반도체, 스마트시티, 해양

모빌리티,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부산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힘썼다.

■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 참여 확대와 소통 강화를 위해 의회야카데미, 시민의회교실, 대학생 모의의회, 로비콘서트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였다.

또한 부산정책협의회와 찾아가는 현장 민원 운영과 공익캠페인 추진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채널을 확대하여 시민과의 소통 기반도 넓혔다.

특히 '부산광역시의회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 개정, 반부패·청렴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청렴 의정 실현에 힘쓴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1등급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최고 수준의 성과로 평가받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의 성과로 이어졌다.

■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선도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완전한 지방시대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앞장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연합회의 회장을 배출하며 지방분권의 제를 주도하였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착,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힘써왔다.

또한 부울경 협력과 지역소멸 대응, 도시외교 확대 등 지방시대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책임감으로 힘 없이 달려왔다"며 "지난 4년간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대 최고의 정책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 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 조기건설,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지방분권 확대 등 부산의 미래를 위한 과제 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성과가 부산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번 폐회연을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지난 4년간 축적한 의정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할 제10대 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지방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황우규 기자 hog@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부산교육 AI 튜터 'BeAT' 학생용 본격 서비스

운전한 AI 기반 교수·학습 생태계 구축... 디지털 교육 전환 선도·학생 자기주도적 미래 역량 강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유영욱)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전환을 선도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학습용 생성형 AI 서비스인 '부산교육 AI 튜터 BeAT(비트, Busan education AI Tutor)'의 학생용 서비스를 전격 개통했다고 6월 18일 밝혔다.

'BeAT'는 교사에게는 수업 준비와 평가 문항 제작을 돕는 '보조교사'로, 학생에게는 질문 해결과 맞춤형 학습 계획을 지원하는 '학습 튜터' 역할을 하는 교육용 특화 AI 서비스다. 지난 4월 교사용 서비스 개통에 이어 이번 학생용 서비스 추가 오픈으로 운전한 AI 기반 교수·학습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번에 고도화된 'BeAT' 서비스는 OpenAI의 최신 모델인 GPT-

5.4 추론 모델과 GPT-image 모델을 적용해 추론 및 이미지 생성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다국어 번역·통역 지원, AI 에이전트 기반 학습 설계 외에도 한글(hwp·hwp), PDF, PPT, Word(docx) 등 다양한 파일 형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화 내역을 docx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편의 기능도 탑재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서비스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과 확산을 위해 선도교사 및 교육연구회를 운영해 교과별 활용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다채로운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교사 직무연수(6월~9월)는 부산 지역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찾아가는 연수'를 운영한다. 주요 기능 및 교과 활용



중심의 기초 과정과 AI 에이전트 설계, RAG 기반 자료 활용 등 학습 중심의 심화 과정으로 세분화해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을 끌어 올린다.

7월부터는 생성형 AI의 올바른

이해, 탐구활동 및 수행평가 준비, 자기주도 학습 지원 등을 중심으로 BeAT 활용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생들이 AI를 안전하고 스마트한 학습 파트너로 활용하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교육디지털원패스' 계정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활용 안내 챗봇이나 카카오톡 채널(010-5127-6082, 평일 10:00~17:00)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유영욱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이번 BeAT 서비스의 학생용 오픈과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공공교육 AI 활용의 성공적인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ljh@

부산 서구, 보훈회관 준공식·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성료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지역 보훈문화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조성된 서구보훈회관 준공식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위한 새로운 보훈문화 공간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보훈단체 회원과 지역 주민,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구보훈회관 준공을 축하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서구보훈회관은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기존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전면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특히, 지역 내에 분산돼 있던 9개 보훈단체를 한곳에 모아 보훈 가족들의 소통과 화합,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마련됐다.

서구는 앞으로 보훈회관이 단순



한 행정시설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세대 간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 보훈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보훈 가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문화를 확산하고, 보훈의 가치가 일상 속에 살아 숨 쉬는 따뜻한 보훈도시 조성에 힘써 계획 이다.

이정현 기자 ljh@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지능형과학실 조성

설계부터 가구, 기자재 구축까지 ONE-STOP 솔루션 제안

미래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공간 설계와 스마트한 가구, 첨단 기자재를 하나로 연결하여 창의적이고 안전한 과학실을 완성합니다.

인테리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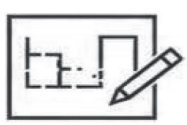


기자재



- 무선으로 자유롭게, 더 선명하게 관찰하다!
- 무선 연결 지원
- 고화질 광학 시스템
- LED 조명 내장
- 디지털 카메라 연동
- 간편한 조작

현미경(일반) (주)오맥스



맞춤형 공간 설계
교육과정과 실험 특성에 최적화된 공간 구성 및 디자인



통합 솔루션 제공
인테리어, 가구, 기자재를 원스톱으로 구축



안전하고 스마트한 환경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스마트한 실험 환경 구현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안정적인 운영 지원



월드퍼니처 부산진구사업단

051.711.144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91, 서면 동양빌 1104호

괴롭힘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박차

충북교육청, 관리자 120여명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6일 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관리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관리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리자들의 소통·공감 역량과 갈등관리 능력을 높여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책임 있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교육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흥기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의 이해 ▲행위 유형 및 실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접수 시

관리자의 역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조직 내 갈등 상황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조치 사항 등을 사례 중심으로 운영됐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 관리자를, 5년 미만 저경력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확산에 힘을 계속하겠다.

윤건영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다. 관리자들의 공감과 소통, 경청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청주고, 6·25 참전 동문 호국영웅 송고한 희생 기려

전교생·교직원 함께 '호국 정신을 새기는 추모의 꽃길을 걷다' 행사 운영

청주대학교(교장 장용)는 6·25전쟁 76주년을 맞아 25일 오전 교내 6·25 참전 동문 호국영웅 추모비 일대에서 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호국 정신을 새기는 추모의 꽃길을 걷다'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에 참전한 청주고 출신 호국영웅 121인의 송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학생들이 나라 사랑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생회 임원의 안내에 따라 정문에서 추모비까지 함께 걸으며 추모의 꽃



길을 만들고, 국화를 헌화한 뒤 전했다. 또한 추모시 낭송과 나라 사랑 묵념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유기성 기자 ygs@

의 의미를 되새기는 참여 활동을 통해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학년 맹주형 학생이 직접 작성한 추모시를 낭송해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의미를 더했다.

맹주형 학생은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며 "직접 시를 쓰고 낭송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고 말했다.

올해 개교 102주년을 맞은 청주고는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나라 사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다양한 호국보훈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기성 기자 ygs@

은여울중·고, "안녕, 나야 미호종개" 김정애 작가 강연회

중1부터 고1까지 45명 미호강 생태 탐방·독서활동 통해 생명 존중 의식 높여

은여울중·고등학교(교장 조성연)는 25일 은여울고등학교 꿈마당에서 인포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한 '안녕, 나야 미호종개' 김정애 작가 강연회를 운영했다.

이번 강연은 은여울 대안교과 융합시간에 운영하는 '미호강 보존 기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연에 앞서 학생들은 진천군환경교육센터 생다진천탐과 함께 미호강과 농다리 일대에서 총 4차례 생태 탐방 활동을 진행했으며, '안녕, 나야 미호종개'를 읽고 독서일지를 작성하는 등 사전 독서활동을 통해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강연에는 '안녕, 나야 미호종개'의 저자인 김정애 작가가 참여해 작품 집필 과정과 미호강 생태환경의 가치, 생명 존중의 의미를 학생들과 나눴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5명의 학생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작품을 읽으며 떠올린 생



각과 질문을 나누고, 작품과 지역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특히 이번 강연은 미호강 생태 탐방과 독서활동, 작가와의 만남을 '미호강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연결해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체험과 독서를 바탕으로 배움을 확장하고 지역 환경에 대한 관심과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미호강 보존 기록 프로젝트'에

서 독자 강연을 담당한 신유정 교사는 "학생들이 책 속 이야기를 실제 지역 환경과 연결해 생각해 보고,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작품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체험과 독서, 작가와의 만남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 지원

충북교육청, 중학교 교원 대상 설명회 개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5일 오후 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2026. 중학교 교원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내 중학교 교감과 3학년 부장, 3학년 담임,

을 안내받았으며,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한 중학교의 역할과 학생 진로·학업 설계 지원 방안도 함께 살펴봤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중학교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답변을 들으며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학교로 돌아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체 전달 연수를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정문희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출발점은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주도적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도내 중학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기성 기자 ygs@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인성93

윤문원 지음

저자 윤문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게재

출판사 : 씽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쿠방,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등 전국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 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경계선 지능 학생 조기 발견·맞춤형 지원

충북교육청, 느린학습자 학습결손 장기화 예방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도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느린 학습자 조기 발견과 성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습결손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통합지원 안

학생으로, 적절한 시기의 지원이 필요한 교육지원 대상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의 약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나타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은 담임교사가 느린학습자 특성 선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경계선 지능 위험군 학생을 선별하고, 학교 신청을 거쳐 전문가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지

는 단계별 체계로 운영된다.

심층진단은 도내 10개 교육지원청 위(Wee)센터와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임상심리전문가와 임상심리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한국 웨슬러 아동 지능검사(K-WISC)를 포함한 표준화 검사를 활용해 실시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학생들에게는 지역 전문가와 연계한 학습·정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부모 상담과 교사 대상 학습지도 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진단을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지 않고 도내 위(Wee)센터와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전문 인력이 직접 수행하는 충북형 지원체계로 운영된다.

유기성 기자 ygs@

청주여자상업고, 현장 중심 교육 확대

디자인협동조합 여유리에와 업무협약 체결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김현희)는 24일 교내에서 디자인협동조합 여유리에(이사장 주희진)와 미래형 현장교육 확대와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디자인 이론을 산업 현장과 연결해 실무 역량을 기르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콘텐츠 디자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브랜딩·굿즈 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작가 및 문화 기획자와 연계한 진로체험, 멘토링, 특강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 작품과 창작 굵의 전시·홍보·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및 캐릭터 IP 개발 프로젝트, 로컬브랜드 탐색 활동, 지역 문화행사 참여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향후 운영될 실무형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 실무 경험을 쌓고 협업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희진 디자인협동조합 여유리에 이사장은 "양 기관이 가진 인프라와 전문성이 만나 학생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있는 교육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목포공고·해남공고, 신규 마이스터고 지정

전남교육청, AI·에너지 지역 산업 맞춤형 전문 기술인재 양성 본격화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한 '제20차 마이스터고 지정 심의'에서 목포공업고등학교와 해남공업고등학교가 신규 마이스터고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제20차 마이스터고 지정 심의에서 전국 6개 신규 마이스터고 가운데 전남에서 2개교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목포공업고와 해남공업고는 모두 첫 공모에 도전해 선정됐으며, 학교와 교육청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전남은 기존 4개의 마이스터고(여수석유화학고, 완도수산고, 전남생명과학고, 한국항공만류고)에 더해 AI와 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2개교를 새롭게 확보하게 됐다. 전남 광주 통합의 핵심 과제인 지역 전략산업 인재 양성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맞는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지정 이후에는 학교별 특성화 분야에 맞춰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전문 기술사 생활과 산학겸임교사 중심의 실무 교육을 받는 등 산업 현장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 체계를 갖춘다.

목포공업고는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AI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에너지 산업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해상풍력, 그린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AI 데이터센터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특히 전남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AI·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연계해 생산·저장·변환·전송·소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능형 에너지 밸류체인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공업고는 AI 데이터센터 운영과 첨단 디지털 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인재를 키운다. AI 공조냉동, AI 에너지, AI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 솔라시도 국가AI컴퓨팅센터 조성과 AI 데이터센터 산업 확대에 대응해 GPU, 초고속 네트워크, 첨단 냉각, 전력 운영 등 AI 인프라 전반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역량을 갖춘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해 목포공업고에는 총 162억 원(교육부 50억 원·전라남도교육청 100억 원·목포시 12억 원), 해남공업고에는 총 189억 원(교육부 50억 원·전라남도교육청 100억 원·해남군 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두 학교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8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로 전환, 운영된다.

이번 신규 지정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직업계고 재구조화 정책의 성과이다. 전남교육청은 학생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과 개편,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전남글로벌학교 운영, 마이스터고 확대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직업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이번 공모 과정에서는 학교별 특화 분야 발굴을 비롯해 산업체·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투자 계획 수립, 교육과정 설계, 교육부 정책 방향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학교와 함께 준비해 왔다.

앞으로 전남교육청은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역량 강화, 첨단 실습환경 구축, 취업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해 마이스터고 지정이 지역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성야 진로교육과정은 "목포공업고와 해남공업고의 마이스터고 지정은 전남 직업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직업교육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영마이스터로 성장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화순 아이들, 지역 바이오 현장서 생명과학의 꿈 키우다

화순교육지원청, 전남바이오진흥원 RIS사업 연계 'K-백신 바이오 특화교육'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은 지난 6월 23일 화순 초등학교 본교 및 이서분교 5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화순 전남바이오진흥원 바이오의약본부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순교육지원청과(제)전남바이오진흥원이 체결한 'K-백신·바이오 특화교육'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지역 혁신사업(RIS)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된 본 프로그램은, 지역의 우수한 전문 인프라를 학교 교육과 직접 연결하여 학생들이 실전 중심의 생생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활동은 화순초 본교와 이서분교의 공동교육과정인 '잇(IT)다 교실' 프로젝트 중 '우리 지역 생태 탐구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교실에

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 현장 이직현)은 지난 6월 23일 화순 초등학교 본교 및 이서분교 5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화순 전남바이오진흥원 바이오의약본부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의생명과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기초 탐구: 세포의 구조 및 역할 학습, 현미경을 바른 사용법 습득 △실현 학습: 구강강피세포 채취 및 현미경 관찰을 통한 생명과학 기초 확인 △원리 이해: 세포 성장 과정과 백신 제조 원리의 연계 학습 등에 참여했다.

이지현 교육장은 "전남바이오진흥원 RIS사업의 내실 있는 지원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바이오 자원을 직접 접하며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며, "앞으로도 교실 안의 배움이 지역 사회의 산업 및 생태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교육지원청은 이번 체험 교육을 기점으로 지역 내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 분야 연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화순만의 차별화된 'K-바이오 교육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높이고 바이오 개념을 대중화하기 위해, 의생명과학 지식을 게임 요소와 결합한 '화순 VB(백신·바이오)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를 제작 중이다.

올해 10월 보급을 목표로 하는 이 게임은 초등용 '생활 속 바이러스 탐구'와 중등용 '백신 개발 전문직 체험' 등 학교급별 맞춤형 웹앱 형태로 개발되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진로를 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영식 기자 2580news@daum.net

순천청암고 학생들이, 전남상업경진대회서 금·은·동상

지도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 성장의 결실... 상업계열 진로 역량 강화



국생상성본부장상, 경리실무 이○○ 학생은 순천상공회의소장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았다.

학생들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실습과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이어가며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지도교사들은 학생별 수준과 강점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와 실전 중심의 연습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썼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수상 성과를 넘어 학생들의 직무 역량과 진로 준비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순천청암고등학교는 앞으로도 상업계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 중심 교육과 다양한 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 지도교사의 헌신이 함께 만든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

전남 순천청암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6월 10일, 11일 전남상업경진대회에 참가해 금상·은상·동상 및 기관장상을 수상하며 상업계열 교육을 통해 쌓은 실무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전남상업경진대회는 상업계열 학생들이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과 직무 수행 능력을 겨루고, 미래 직업 역량을 키우는 대회다.

순천청암고 학생들은 꾸준한 전공 학습과 실무 중심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대회를 준비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켜 왔다.

대회에서 이○○ 학생은 전자상거래실무 종목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서○○ 학생은 사무행정 종목 은상을 차지했다. 박○○ 학생은 세무실무 종목 동상, 임○○ 학생과 정○○ 학생은 경리실무 종목에서 각각 동상과 4위, 6위를 기록했다.

또한 회계실무 경○○ 학생은 순천상공회의소장상, 취업설계프레젠테이션 천○○ 학생은 전남상업교육회장상과 김○○ 학생은 한

호남권 발명교육의 메카, 창의융합교육의 미래 활짝

광양발명교육센터, 전국 최초 3년 연속 최우수발명교육센터 선정 쾌거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교육장 김여선)는 지난 6월 24일 광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2025년도 우수 발명교육센터 시상식'에서 전국 최우수발명교육센터로 선정되어 지식재산차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지식재산청과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자리로, 광양발명교육센터는 2023년부터 2025년 평가까지 3년 연속 최우수발명교육센터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단일 기관 통산 6번째 최우수발명교육센터로 이름을 올리며 전국 최고 수준의 발명교육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동안 광양발명교육센터는 대한민국학생창의력대회 대상을,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동상, 전국 창업·발명경진대회 최우수상 및 우수상, 전국 초·중학생 발



명 글짓기·만화 공모전 우수상 등 다수의 권위 있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또한 특허 출원 10건, 특허 등록 4건의 실질적인 지식재산권(IP) 창출 성과를 이루며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기술로 발전시키는 발명교육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새롭게 구축된 광양 창의융합교육관으로 이전하여 발명·AI·메이커 교육 등이 융합된 창의융합교육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김여선 교육장은 "이번 4년 연속 최우수발명교육센터 선정은 학생들의 도전과 열정, 지도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새롭게 조성된 광양창의융합교육관을 기반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과 가족, 지역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발명교육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옥란 기자 2580news@daum.net

로도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만열 기자 2580news@daum.net









우선구매대상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의 친환경 다중 OH 라디칼과 나노버블수를 이용한

그리스트랩 오수정화장치

그리스트랩 오수처리장치로 청소 및 유지관리는 수월하게!
급식 위생과 직결되는 조리실 환경을 청결하게!



한아름테크 (전남 총판)
전화 0505-629-3366
팩스 0505-619-3366

“학운협, 전북교육의 든든한 한 축 역할”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발대식... 김용일 전주시 협의회장 신임 회장 선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발대식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학운협)는 도내 모든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14개 시군 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28일 김용일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도내 14개 시군지역 협의회 임원진을 비롯 천호성 전북교육감당선인,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에향본부 윤석정 총재, 이국 전주시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학운협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용일 신임 회장은 “학교의 특색과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을 위해 도내 각 시군협의회 회장 및 학교운영위원장들과도 소통을 강화할 것이며, 학부모 및 지역의 목소리를 교육청

에 전달하고 협력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학운협은 전북교육의 든든한 한 축으로 단위학교가 다양하고 내실있는 공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하

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현장 중심 수업으로 건전한 역사 의식 키운다

전북교육청, 초등 역사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 역사 교육 전문성 높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초등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초등 역사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를 운영했다.

이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초등 역사 관련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수업 사례와 자료 활용법을 공유하여 교원들의 역사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강사로는 이경관 순창초등학교 수석교사가 참여해 새로운 교육과



정에 따른 초등 역사 단위 구성의 특징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효과적인 역사 지도 방안을 제시했다.

김홍태 기자 kht@

전주보름학교, 내년 3월 개교 준비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 설명회 열고 학부모 궁금증 해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전주보름학교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돕기 위해 26일 전주지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전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 설명회와 연계해 ‘전주보름학교 입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전주보름학교 설립 배경과 교육과정을 비롯해 학생 배치 계획까지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등 단일화 특수학교인 전주보름학교는 총 18학급(중학교 6학급·고등학교 6학급·전공과 6학급), 정원 132명 규모로 설립되며, 학령

기부터 전공과까지 연계된 진로·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옛 자림원 부지에 설립돼 덕진구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있는 특수교육 여건을 조성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장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활동

을 통해 졸업 이후 자립생활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전주보름학교 설립은 특수학교의 균형적 배치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 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7년 3월 개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완주교육지원청, 면 지역 위기학생 촘촘히 관리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면지역 학교-지역기관 협의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민)은 6월 26일 오후 2시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완주군 관내 면지역 학교와 아동·청소년 교육, 정신건강, 복지 관련 지역기관 담당자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면지역 학교-지역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완주군 읍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운영에서 소외되어왔던 면 지역의 위기학생을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복지센터-지역 돌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지역기관들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완주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안내로 문을 열었다.

이어 면지역 학교들이 현장에서 위주의 역사 수업에서 벗어나 초등 사회와 역사 영역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한 수업 설계와 운영 사례를 생생하게 소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새 교육과정에 맞춘 역사 수업 설계에 고민이 많았는데, 구체적인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접하게 돼 2학기 수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수업 나눔과 교사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과 건전한 역사 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홍태 기자 kht@



완주를 대표하는 5개 기관의 주요 사업 소개가 진행되었다.

특히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9개 면 지역별 분임 협의’에서는 완주군 내 9개면 소속 학교 교직원과 지자체 사례관리사, 돌봄센터장 등이 자리를 마주하고 소통의 자리를 갖고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직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참석자들은 “학교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시작점이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주요 기관의 지

원 내용이 상세히 담긴 책자가 제공되어 유용했다는 의견과 향후 향후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영민 교육장은 “이번 협의회는 완주 관내 면 지역의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학생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제안된 소통창구 활성화, 모임의 정례화 등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홍태 기자 kht@

아름다운 선율로 학생들 마음 채워

전북교육청, 어울소리 오케스트라 장애인식 개선 공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1층 공연장에서 ‘2026년 어울소리 오케스트라 찾아오는 장애인식 개선 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 공감 문화 확산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 공연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도내

8개교(기관) 350여 명의 학생과 교원이 참여했다.

발달장애 예술인으로 구성된 어울소리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친숙한 동요와 영화·애니메이션 주제가 등을 선보이며 관객과 소통했다. 특히 영화 겨울왕국 OST ‘사

랑은 열린문’,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 등 익숙한 곡들을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선율로 재해석해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상반기 장애인식 개선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어울소리 오케스트라는 오는 7월부터 하반기 장애인식 개선 공연 신청을 받아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공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함유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 공감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김홍태 기자 kht@

전북교육청,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초중고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일상적 갈등 및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 방식을 ‘치열’ 중심에서 ‘치유와 회복’, ‘선도와 교육’으로 전환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오는 7월 16일까지 초중고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14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지리적 접근성 향상 및 학부모 참여도를 높이고자 학교 단위 또는 인접 학교를 연계해 운영하며 총 35개

학교, 500여 명의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평화적인 갈등 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기존의 학교폭력 유형 및 대처 방법 등 단순 사안처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피해의 회복과 관계의 재정립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강연이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김홍태 기자 kht@

A.T PROGRAM (AI + Touch My Dream)

"내 아이를 위한 아주 특별한 검사"

M.I.T
마음지능검사
(Mind Intelligence Test)

- 1 100가지유형 기질검사
- 2 자기주도학습태도검사
- 3 강점지능검사
- 4 성품검사

M.E.T
마음에너지검사
(Mind Energy Test)

- 1 유전자지문적성검사
- 2 학업스트레스검사

With You Program
함께라면
(With You Program)

- 1 진로프로그램
- 2 소통프로그램
- 3 마음알아주기 프로그램

殷字·東夷·韓民族 이야기

和와 私, 고개 숙인 '벼 이삭'의 방향이 운명을 갈랐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방향'에서 결정된다. 상대를 향해 몸을 기울이느냐, 아니면 등을 돌리느냐에 따라 화합(和)이 되기도 하고 사사로움(私)이 되기도 한다. 한자 '화합 화(和)'와 '사사로움 사(私)'는 본래 하나의 뿌리에서 태어났지만, 이삭이 굽은 '방향' 하나로 극단적인 대칭을 이룬 흥미로운 사례다.

■ 금문이 전하는 비밀: 입(口)을 향한 마음

금문에 나타난 두 글자의 원형은 모두 벼(禾)와 입(口)의 결합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벼 이삭의 끝에 있다. 화(和)는 벼 이삭이 입(口)을 향해 부드럽게 숙여져 있는 형상이다. 이는 상

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和答), 그 소리를 긍정하며 받아들이는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맛있는 밥(禾)을 함께 나누며 대화(口)를 즐기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풍경이 '화'라는 글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 등을 돌린 이삭, 소외와 욕심의 시작

반면 사(私)는 이삭이 입(口)의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이는 타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이속만을 챙기려는 고립된 마음을 상징한다. 안타깝게도 『실문해자』는 이 심오한 조자 원리를 놓쳤다. 그저 '벼(禾)의



뜻과 소리(厶)가 합쳐진 것'이라며 평면 글문과 금문의 원형을 복원해보면, 사(私)라는 글자는 타인과의 연결을 거부

하고 자기만의 방에 갇힌 인간의 '소외'를 시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방향이 결정하는 삶의 태도

이 대칭 구조를 이해하면 한자는 단순한 알기 대상이 아니라 철학적 성찰의 도구가 된다. 화(和)가 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키우는 행위라면,

사(私)는 소통의 단절을 통해 개인의 영역만을 고수하려는 태도다. 결국 한 글자는 상대를 향한 '경청'에서, 다른 한 글자는 자신만을 향한 '독점'에서 출발한 셈이다.

당신의 이삭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사(私)'의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은가. 타인의 고통이나 목소리에는 등을 돌린 채, 오직 나만의 이익과 편함을 위해 '사사로움' 길을 걷고 있는 것

은 아닌지 되문게 된다. 한자의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은 옛 글자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벼 이삭을 입 쪽으로 돌려 세워 화(和)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돌려 사(私)에 머물 것인가. 수천 년 전 고대인이 글자에 새겨놓은 이 준엄한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 육우균
◇ 교육연합신문 주필

전 재 학 의 교 육 칼 럽

교육의 '정치적 면역계'를 구축하자

"이제는 교육이 정치의 미성숙함을 걱정하고, 이를 치유할 인재를 길러내야 할 때다."

우리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를 뜯어고치고, 교육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와 기구를 신설하는 등 주로 '제도적 외과 수술'에 매달려 왔다. 하지만 아무리 법률을 바꾸고 구조를 개편해도, 적대적 거대 양당 정치라는 강력한 구조는 교실이라는 공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선거철만 되면 교육 현장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실험실로 전락하곤 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이 고질적인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외과적 수술을 넘어, 교육 현장 스스로가 정치적 외풍을 이겨내는 자체적인 '면역계(Immune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제도나 정치인의 선의(善意)에 기

대는 독립이 아니라, 교실 내부의 체질을 바꾸어 정치가 감히 침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 할 것이다.

과거 우리가 거시적인 제도 개혁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이, 정작 교육의 미시적 생태계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왔다. '교육 현장의 정책 수용도' 연구에 따르면, 상향식(Top-down)으로 하달되는 정치권발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오히려 교사들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침해하여 공교육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OECD 교육 지표에서도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국가일수록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된 교육 성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정치가 교육을 흔들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실이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단기적 성과 위주의 공약들은 학교를 장기적인 안목이 실종된 '피로 사회'로 만들 뿐이다. 이에 우리는 제도적 독립을 넘어, 정치의 논리가 교실 문턱에서 스스로 차단되도록 만드는 획기적인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 과정의 '블록체인(Blockchain)화'를 통한 정책 불변성 확보다.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교육과정을 손쉽게 주무르지 못하도록, 국가 교육의 핵심 뼈대를 분산형 시스템인 '블록체인'처럼 상호 검증 구조로 묶어야 한다. 지역 사회, 현장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계가 공동으로 승인한 교육의 핵

심 가치와 장기 로드맵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단독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는 정치가 교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합의체만이 교육을 진화시킬 수 있는 안전한 '잠금장치'라 할 것이다.

둘째, 진영 논리를 파쇄하는 '메타-비판(Meta-Critical) 사고'의 훈련이다. 정치인들이 교육을 도구로 삼는 이유는 대중이 진영 논리에 쉽게 휩쓸리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가르치는 대신, "왜 저 정치인은 저런 주장을 할까?", "저 공약 뒤에 숨은 이해관계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분석하는 '미디어 및 정치 리터러시' 수업의 강화가 필요하다. 정치적 수사와 선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 앞에서는, 어떤 정치인

도 교육적 야합이 불가할 것이다. 이는 핀란드의 체계적인 '가짜 뉴스' 판별 교육과 같은 맥락이다.

셋째, 세대의 서사로 이념의 독소를 녹이는 '격대(Gyeok-dae)교육'의 구조화이다. 정치적 이념은 대개 동시대의 갈등을 먹고 자라지만, 세대를 뛰어넘는 역사적 경험은 갈등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이는 현대의 이념 대립으로 얼룩진 교과서 밖으로 나와, 아이들이 격동의 한국사를 온몸으로 관통해 온 조부모 세대의 서사를 직접 체득하고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라 할 것이다. 정치인의 외침이 아닌, 평범한 이웃이자 가족인 조부모 세대의 날 것 그대로의 삶의 궤적을 마주할 때, 아이들은 인위적으로 가공된 진영 논리를 초월해 연대감과 따뜻한 인성의 가치를 체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세계의 미래 교육의 도도한 흐름은 이미 정부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가 삶의 주제로 우뚝 서는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정치가 교육을 걱정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다. 이제는 교육이 정치의 미성숙

함을 걱정하고, 이를 치유할 인재를 길러내야 할 때다.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요요현상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교실 내부의 면역력을 키워 굳건한 교육의 자존감을 세워야 한다. 정치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깊고 단단한 사유의 숲을 아이들의 내면에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혁신적인 교육 자율성의 확보라 할 것이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선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장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최 윤 용 의 100세 칼 럽

침묵의 장기가 보내는 경고, 대사이상지방간질환(MASLD)과 한의학적 해법

1. 지방간의 새로운 이해, 대사이상지방간질환(MASLD)의 복합적 병리 기전

최근 세계 각학회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NAFD)이라는 기존 명칭을 대사이상지방간질환(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 MASLD)으로 변경하며 이 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병명 변경은 이 질환이 단순히 알코올 섭취가 원인이 아닌 지방간 질환이라는 애매한 관점을 넘어, 전신적 대사 기능 장애와 심혈관 대사 위험 인자가 병행의 핵심이라는 보다 명료한 질환명의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MASLD의 병태생리는 단순한 간 내 지방 축적을 넘어서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 인슐린 저항성, 지질 독성, 미토콘드리아 및 내장지방세포 스트레스, 장내 미생물 불균형(장-간 축의 붕괴)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간세포의 손상과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간 내 지방 축적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방 조직의 인슐린 저항성에 따른 유리지방산의 과도한 간 유입과 간 내 신생 지방 합성(De novo lipogenesis)의 병리적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간경변과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MASLD의 장기적 경과와 조기 발견의 중요성

MASLD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 간세포에 염증과 지방 축적이 동반되어 정상보다 2-3배 부풀어 오르고 손상되는 풍선변성(hepatocellular ballooning)을 동반하는 대사이상지방간염(MASH)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가

지 악화된 지방간질환은 이후 중증 간질환인 간 섬유화 및 간경변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특히 간 섬유화의 중증도는 MASLD 환자의 전체 사망률 및 간 관련 합병증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간 섬유화가 심해질수록 간세포암(간암) 발생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며,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 간암의 연간 발생률이 0.7~2.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MASLD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조용한 병'이기 때문에 조기에 위험을 인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침묵적인 간 생검을 대신하여 FIB-4 지수와 같은 비침습적 혈청 바이오마커나 진동제어 일과성 탄성초음파(VCTE), 자기공명영상 양성자 밀도 지방 비율(MRI-PDF) 등의 영상 진단 기법이 간 섬유화의 조기 발견 및 위험도 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한 MASLD는 적극적인 생활 습관 교정 및 관리를 통해 질병의 진행을 차단하고 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약물 치료의 한계와 새로운 치료 옵션의 딜레마

현재 광범위한 MASLD 환자군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효과적인 약물 치료법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중요한 의학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진행성 간 섬유화 환자를 위한 약물이 개발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조직학적이거나 임상적으로 충분한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대성 간경변증 환자 등 중증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

라서, 아직 MASLD에 대한 치료 지침은 체중 감량과 식단 조절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산성 호르몬 수용체 베타(THR-β) 작용제인 레스메티롬과 GLP-1 수용체 작용제인 세마글루타이드가 중등도 이상의 섬유화를 동반한 MASH 치료제로 미국 FDA의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약물들은 간 내 지질 대사를 촉진하거나 체중 감량 및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MASH를 호전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신약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딜레마는 MASLD가 단순한 단일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유전적 소인, 대사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촉발 인자가 복합하게 얽혀 발생하는 이질적인 증후군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MASLD는 다양한 대사적 요인이 얽힌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증후군이므로, 단일 경로만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 하나로는 모든 환자의 병리적 진행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의 치료와 MASLD 치료 한약의 다중 표적 조절 효과

이러한 단일 표적 치료의 한계 속에서, 전신 대사의 불균형을 다각도로 회복시키는 한의학적 접근이 MASLD를 극복할 새로운 과학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천연 활성 성분이 어우러진 한약은 단일 경로가 아닌 다중 표적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복잡하게 얽힌 MASLD의 병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예컨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중요한 한약으로 활용되어 온 갈근(Pueraria lobata)의 핵심 이소플라본 성분인 푸에라린(Puerarin)은 간세포 내에서 AMPK 및 PI3K/Akt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고, SREBP-1c와 같은 지방 합성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간 내 지질 축적을 차단합니다. 아울러, 푸에라린은 Nrf2/ARE 항산화 경로를 자극하여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경감시킵니다. 이 외에도 한약재 황련 등에서 추출되는 베르베린(Berberine)과 강황의 커큐민(Curcumin) 성분 등 역시 간 내 지질 합성을 억제하고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한약에 함유된 다당류(polysaccharides) 성분들은 최근 MASLD의 새로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간 축(Gut-liver axis)'의 붕괴를 바로잡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상태는 장벽의 투과성을 높여 장내의 독소를 간으로 유입시키고 TLR4/NF-κB와 같은 염증 신호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다당류와 같은 저항성 전분 등은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단쇄지방산(SCFA) 생성을 촉진하여 장 점막의 장벽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간으로 향하는 염증 신호를 차단하고 전신적인 대사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황련해독탕, 일관전, 영계출감탕 등 전통적인 한약 처방의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

의 임상 연구에서 한약과 기존 서양의학적 관리(식이, 운동 등)를 병행했을 때, 단독 관리에 비해 간 기능, 혈중 지질 수치, 체질량지수(BMI) 등 전반적인 MASLD 경과에서 더 나은 결과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비약물 치료인 침 치료의 효과 역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편, 체내의 지방분율 측정이 가능한 자기공명영상(MRI-PDF)장비를 활용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12주간 침전기자극을 시행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간 내 지방 함량이 유의미하게 크게 감소(-33.6%) 하였으며, 간 지방이 30% 이상 감소한 환자의 비율도 더 높았습니다. 이는 전신적 대사가 체중과 체질량지수(BMI)를 안전하게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간 내 지질 대사를 가속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5. 대사이상지방간질환을 극복하는 일상 속 자가 관리법

대사이상지방간질환(MASLD)은 단순한 간의 문제를 넘어 전신 대사의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어 악화하는 다계통 복합 질환입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과 식이 조절, 규칙적인 운동을 포함한 적극적인 생활 습관의 교정은 질병의 진행을 막고 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일차 치료 전략입니다.

· 체계적인 식단 및 영양 관리

최근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 패턴을 권장할 때, 체성분의 미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사 마커와 간 기능 검사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고합니다. 아울러, 정제 탄수화물과 초가공식품의 섭취는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입니다. · 지속적인 운동요법 실천: 체중 감량과 독립적으로, 운동 개입은 자기공명영상으로 측정된 간 지방을 평균 24%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주당 최소 150분 이상의 빠르게 걷기와 같은 중등도 강도의 활동에 해당하는 개입에서 가장 큰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 식이섬유 섭취를 통한 장-간 축(Gut-liver axis) 관리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장내 장벽 투과성의 상실은 내독소 방출을 증가시키고 MASLD의 병리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환경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된 채소, 콩류, 콩국물, 해조류 등을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사이상지방간질환은 간의 문제로 시작해 전신 대사 전반을 위협하는 간과할 수 없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신체 고유의 대사 기능과 장내 환경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되찾아주는 과학적인 한의 치료에 꾸준히 올바른 생활 관리가 더해진다면 충분히 질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대사 균형을 지혜롭게 바로잡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간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최윤용
◇ 큰나무한의 대표원장
◇ (주)오희생약 대표이사



제작부터 설치까지, 믿을 수 있는 가구 전문기업 월드퍼니처

✓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 및 연계고용 부담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설계부터 제작·납품·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토탈 가구 솔루션 구축!!

✓ 학교·관공서·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선택한 가구 전문기업!

ESG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월드퍼니처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



여성기업

여성의 도전과 성장이 만드는 가치 있는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하는 기업

학생 공간에 꼭 맞춘 안전한 가구 솔루션!!



학생 중심의 교실 가구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한 교실가구



탐구력을 키우는 과학실 가구

안전한 실험 환경을 완성하는 과학실 가구



독서와 배움의 공간 도서관 가구

지식과 배움이 자라는 공간, 도서관 가구

상담 및 문의

worldfurni.com

1 5 8 8 - 3 8 8 6

공간에 맞는 가구의 정답, 월드퍼니처!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